

# 1만원으로 미래를 키우다 YWCA 1922 장학금

100주년을 앞둔 YWCA가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1만원만 내면 Y-틴, 대학·청년Y 3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후원방법

1년에 1만원씩 5년간 후원

###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 장학금 지급

2017년부터 100주년까지 매년 30명  
Y-틴, 대학·청년Y 임원활동 장학금

### 문의

전화 02-774-9703(장학위원회)

YWCA 한국YWCA연합회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관악회부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 한국 YWCA

2019년 9·10월호  
September·October

Vol.563

### 특집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2019년 태백산

### 기획 여성과 평화

평화를 향한 여성들의 연대의 발걸음  
평화를 위해 여성이 일한다

### 이달의 현장

한국YWCA 정책협의회  
제5차 길 위의 평화포럼  
제1차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아카데미  
제2차 YWCA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  
싱크머니 '펍판' 수업



# 건전한 TV문화 육성을 위한 모니터 활동



1983년 3월 24일에 열린 간담회에서 “TV 어린이 프로그램이 너무 어른스럽다”는 결론에 따라 1983년 5월 26일 TV 해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텔레비전과 어린이’세미나를 개최했다.

1970, 1980년대의 어린이들은 TV와 함께 자란 세대로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TV 앞에서 보냈다. 실제로 ‘6백만불의 사나이’를 흉내내 담에서 뛰어내려 떨어져 죽은 일이나 공상만화를 보고 어린이가 무인도탐험에 나선 사건 등은 TV가 어린이에게 미친 단편적인 실례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TV모니터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TV가 가진 좋은 기능을 살려 질 높은 방송을 제공하도록 하고 역기능을 비판하여 TV 제작과 방영에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려는 시민운동이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영향을 받는 매체

가 바로 TV프로그램으로 YWCA는 1983년 1월부터 어린이 TV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주부모니터요원 67명에게 1개월 동안 모니터링 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배정해주었다.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은 ‘딩동댕’, ‘뽀빠이’, ‘하나 둘 셋’, ‘뚝순이 만세’, ‘천년여왕’, ‘개구리 왕눈이’, ‘호랑이 선생님’, ‘퀴즈로 배웁시다’, ‘모이자 노래하자’, ‘누가누가 잘하나’와 뉴스 등이었다.

프로그램에서 깨우침과 가르침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TV 모니터링 기준을 일곱가지로 세웠다. 1)프로그램의 주 대상이 누구인가 2)폭력적인 내용이 얼마나 있는가 3)코미디적 요소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4)공격적인 요소가 있는가 5)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성별고정관념, 지방색의 표출, 계층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구별해야 한다 6)구성(plot)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현실세계와 비현실세계를 구별하여 생각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7)시청 후의 어린이 반응은 어떤가.

TV 프로그램 모니터링 훈련은 여덟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1)연령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인가 2)오락적인 욕구와 행동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인가 3)자신과 타인과 주위환경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4)가치 있는 사상이나 신념을 고무시켜주고 있는가 5)건설적인 활동을 고무하는 내용인가 6)미학적인 요소가 있는가 7)연령에 맞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8)전체적인 효과가 긍정적인가

한 달 후 진행된 모니터링 보고회 결과를 가지고 1983년 3월 24일에 열린 간담회에서 “TV 어린이 프로그램이 너무 어른스럽다”는 결론에 따라, 5월 26일 YWCA연합회 사회문제위원회는 이러한 TV해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텔레비전과 어린이(최창섭 서강대 신방과 교수)세미나를 개최했다. 6월에는 ‘텔레비전과 건강(김소아자 연세대 간호대 교수)세미나에서 학부모들은 어린이의 교육이나 건강을 위해 TV 시청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문제점 시정을 위한 건의 내용을 관련부서인 방송국, 문공부, 방송위원회, 담당PD 등 18곳에 보냈다.

출처 한국YWCA 80년사

## 2019. 9·10 한국YWCA



### 표지이야기

9월 30일(월)부터 10월 2일(수)까지 태백·정선·영월 일대에서 열린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2019년 태백산’ 순례자들이 조각보를 펼쳐고 있다.

### 2019년 11·12월 주요일정

- 11월 7일**  
제4차 YWCA 미래가치포럼
- 11월 14일**  
YWCA-YMCA 연합예배
- 11월 15일~22일**  
YWCA 세계대회
- 11월 28일**  
제23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 시상식
- 12월 5일**  
성탄예배
- 12월 6일**  
싱크머니 우수강의 경진대회
- 12월 17일~20일**  
김필레 리더십 캠프(정신여중)
- 12월 19일~20일**  
김필레 리더십 캠프(정신여고)

### 제55권 제7호 통권 563호

2019년 10월 22일 발행 (등록번호 서울중,라 00001)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미디어소통위원회 김민주 · 김은주 · 백수경 · 이경순  
 이은혜 · 이하나 · 정선경 · 조한나  
 편집 배정미 · 이주영 · 최수선나 · 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우리 모두의 미션은 창의적인 변화입니다 | 이종임
- 05 **말씀묵상** 내 주님은 어디에 | 박선희
- 특집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2019년 태백산**
- 06 ① 여성, 디아스포라, 평화운동의 새로운 가능성 열다
- 08 ② 사진으로 보는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태백산’
- 10 ③ 포용과 인정, 평화통일의 시작이다
- 12 **2019 YWCA 평화선언문**
- 13 **포럼** 자본주의의 페르소나 : 소비사회와 윤리적 삶
- 16 **탈핵** 2019 YWCA 에너지전환 강사 아카데미 | 최지영
- 기획 여성과 평화**
- 18 **평화**① 평화를 향한 여성들의 연대의 발걸음 | 최수선나
- 19 **평화**② 평화를 위해 여성이 일한다 | 한미미
- 20 **여성** ‘영페미니스트, 글로리아 스타이넴에게 묻다’ | 홍하늘
- 22 **이달의 현장**① 2019 한국YWCA 정책협의회
- 24 **이달의 현장**② 제5차 길 위의 평화포럼 | 엄에스더
- 26 **이달의 현장**③ 제1차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아카데미 | 성혜란
- 28 **이달의 현장**④ 제2차 YWCA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 | 정현주
- 30 **이달의 현장**⑤ 싱크머니 ‘팝핀’ 수업 | 홍수진
- 32 **YWCA초기역사인물** 황애덕 | 이윤숙
- 34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성별의 장벽을 허물자 벌어진 일 : ‘젠더프리’ 캐스팅 연극 | 김민주
- 36 **이달의 포커스** 온라인 ‘여세’ 아카데미 | 돌람수렌
- 37 **연합회 소식**
- 41 **신앙의 실천을 통해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환경 선언**
- 42 **회원YWCA 소식**

# 우리 모두의 미션은 창의적인 변화입니다



**이종임**  
연합회 제2 부회장

1922년 YWCA를 창립한 선배님들의 희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의가 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한국YWCA가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을 주제로 한국YWCA는 지난 2년간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 정책을 펼쳤습니다. 2018-2019 한국YWCA 운동정책에서 4대 추진과제로 ‘탈핵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운동’을 실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YWCA가 2012년부터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해 십자가 행진, 부산시장에게 YWCA 10만 서명 전달 등 탈핵세상을 염원하며 다양한 운동을 펼쳐 2015년 6월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 결정의 감격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가동 중인 핵발전소들과 핵폐기물 처리와 같은 중대한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YWCA가 적극적으로 탈핵생명운동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여성폭력, 여성혐오, 여성차별 등 폭력과 불평등 문제를 위한 성평등 운동,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통일 운동 등 YWCA가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울러 2020-2021년에는 탈핵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운동과 더불어 청소년이 삶의 주체가 되어 행복한 사회 만들기 위한 목표로 하여 청소년 활동가 양성 및 리더십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청(소)년운동을 펼쳐 나갈 때입니다.

YWCA는 ‘정의, 평화, 생명’사회를 위한 100년 이후의

지속가능한 운동을 준비하면서 올해 구조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YWCA가 처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YWCA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운동체, 기독교 여성시민단체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된 소통이 중요한 만큼 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가 미디어소통위원회로 재편되었고 미래사회에서의 운동방향 모색을 위해 ‘현재에서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YWCA 미래가치포럼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YWCA가 소통을 늘리고 성찰과 학습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노력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려 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직무변화가 예상되며 일하는 능력의 변화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을 갖춘 젊은 청년의 인재육성 또한 시급한 일입니다.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닌 창의적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변화에 준비된 조직만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YWCA. 그리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미션은 창의적인 변화입니다. 기독교여성단체로서 YWCA는 정의, 평화, 생명의 세상을 이루어 가는 곳이며, YWCA회원들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YWCA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내 주님은 어디에



**박선희**  
창천감리교회 목사

## 요한복음 20장 11절~18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어둠은 이들의 마음을 드러내줍니다.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시신에나마 향품이라도 넣어 드리려고 길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몇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 들무덤의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 다른 제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비통함에 잠겨 터져 나오는 울음을 쏟아내고 있는 바로 그 때 마리아가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애 통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애통함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주님을 향한 눈물이며 영혼의 비통함이 서려있는 공적인 차원의 슬픔입니다. 과거 파머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란 책에서 비통함으로 마음이 깨지면서 열리는 사람은 어둠과 슬픔의 에너지 안에서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깨어진 마음과 비통함은 우리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구원의 빛이 스며들어오게 하는 틈새가 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 거룩하고 간절할 갈망이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마리아를 찾아

오신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판단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덤에서 죽어 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리아야!”라고 집단의 이름이 아닌, 구체적인 인격을 향하여 호명하시는 순간, 마리아 역시 주님을 알아봅니다. 신앙적 넓이와 깊이가 구체적이며 인격적으로 깊어질수록, 주님을 깨달아 아는 차원도 분명해지고 더 확장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마리아에게 주님은 공동체적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17)라고 분부하십니다. ‘내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던 마리아가, 이제 “내가 주를 보았다”(18)라고 고백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확신에 차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 아무도 길 나서지 않던 캄캄한 새벽에 동산을 오른 마리아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감각과 사람들의 냉담함과 타성을 깨뜨리고 주님을 찾아나서길 열망했던 마리아처럼, 그 거룩한 간절함과 실천적 행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2019년 태백산 참가자들.

남한여성, 탈북민, 조선족, 고려인, 재미동포들이 함께 태백산에 올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다. YWCA는 디아스포라와 여성이 함께 만드는 평화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2019년 태백산’이 9월 30일(월)부터 10월 2일(수)까지 태백·정선·영월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획한 본 순례는 한국YWCA연합회 창립 95주년이었던 지난 2017년 한라산에서 시작해 2018년 지리산을 거쳐 올해 태백산에 이르렀다. 평화순례단은 해마다 남에서 북을 향해 산을 오르며 ‘통일 씨앗’을 뿌리고 100주년이 되는 2022년 백두산 정상에 남북한과 해외동포 여성들이 함께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내 평화가 절실한 이 때,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남북한 여성과 재외동포들의 공감대 확산과 신뢰구축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한국YWCA가 중국 연변(1994), 미국 뉴욕(1996), 중국 연변(2013)에서 세 차례 열었던 ‘한민족여성대회’를 계승해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로 이어가고 있다.

### 재외한인여성 참여로 평화 지평 넓힐 것을 기대

여성평화순례는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광주YWCA·서울YWCA가 해마다 번갈아 가며 주관한다. 서울YWCA가 주관한 올해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재외한인여성들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평화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맡았다. 평화통일의 주체로서 한민족 여성의 역할을 공유하고 연대를 공고히 했다. 연합회 실행위원, 32개 회원YWCA(강릉, 고양, 광주, 군산, 남양주, 대구, 대전, 동해, 마산, 목포, 부산, 서울, 성남, 속초, 수원, 순천, 안산, 안양, 여수, 울산, 원주, 의정부, 인천, 전주, 제천, 진주,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하남), 한민족디아스포라(고려인, 탈북민, 조선족동포, 재미동포), 대학·청년Y 회원, 평화포럼단 등 총 200여 명이 참가했다.

3회째를 맞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여성평화순례일정은 여는 예배로 시작되었다. 이상주 목사(영월성은교회)가 ‘깎지어다 드보라여 너는 노래할지어다!’는 말씀을 전했다. 한영수 연합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는 한민족과 한반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약소민족이나 우리사회 외국 정착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차별과 억압을 되풀이하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유림 서울YWCA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한민족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 한반도 통일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녁에는 순례자들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개그맨 김수용 씨의 사회로 여는 마당을 진행하고 등반준비사 전모임에서 배일환 강사(태백산국립공원)가 태백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쿠바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헤로니모 입을 다룬 다큐 영화<헤로니모를 찾아서>를 상영한 후, 장미란 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이 전후석 감독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 디아스포라와 여성평화운동 간 교집합의 가능성

재미교포이자 코리아 디아스포라이기도 한 전 감독은 한인 정체성을 찾는 근본적 이유로 인간에 대한 사랑, 휴머니즘을 들며 “소수자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YWCA와 전 세계 여성평화활동가들이 DMZ를 넘은 ‘2015년 세계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를 예로 디아스포라와 여성평화운동 간 교집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성, 디아스포라 등 비주류 간의 연대감과 이념을 뛰어넘는 휴머니즘은 평화의 가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든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의 뿌리는 고통이지만 다양한 정체성을 탄생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또한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했다.

둘째 날 오전 9시 반부터 ‘민족의 영산’이라 일컫는 태백산 산행이 시작되었다. 산을 오르기에 앞서 당골광장에 모여 등반식을 진행하며 순례자로서의 다짐을 굳건히 했다. 난이도에 따라 태백산 정상 순례팀, 태백산 반재 순례팀, 태백검룡소 순례팀으로 나누어 산을 올랐다.

태백산 정상 순례팀은 해발 1560m의 천제단에 올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여성평화기도문을 낭독했다. 태백산 반재팀은 왕복 4.6km의 비교적 평탄한 길을 걸으며 특히 숲이 주는 마음의 평안을 물론 느낄 수 있었다. 힘들 것만 같았던 순례 여정에서 만난 뜻밖의 평온함과 위안은 평화를 향해 여정을 이어가는 YWCA 평화순례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다.




장미란 위원장이 30일(월) 다큐 ‘헤로니모를 찾아서’를 제작한 전후석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태백검룡소 순례팀은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둘레 20m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석회암반을 뚫고 올라오는 지하수가 곧바로 20m의 폭포를 이루고 쏟아지는 장관을 보며, 생명의 근원지, 생명 그 자체로서의 힘에 모두가 압도되었다.

### ‘평화의 씨앗’ 뿌리는 순례자들

각자의 순례길에서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온 순례자들은 다함께 모여 감동을 나누었다. 축제에 앞서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여성’을 주제로 한 특강(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에서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곧 평화와 공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라며 디아스포라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순례나눔시간을 가졌다. 탈북민과 중국동포 참가자는 “남한에 있는 탈북민과 조선족을 포용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시작이며, YWCA 평화순례 정신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날 아침, 순례여정은 닫는 예배로 마무리되었다. 평화순례자들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순례자의 삶을 살 것을, 매일의 삶이 순례가 되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평화선언문을 낭독했다. ‘평화의 조각보’는 2020년 여성평화순례를 주관할 광주YWCA에 전달되었다. YWCA는 평화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특집 ②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2019년 태백산 현장 / 화보

# “평화를 향해 순례의 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 ❶ 태백산 정상인 천제단을 향해 걷고 있는 순례자들
- ❷ 태백산 반재에서 '평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❸ 평화순례자들이 강원도 태백산을 걷고 있다.



- ❹ 태백산 천제단에 오른 순례단이 평화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 ❺ 태백산 검룡소에서 평화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 ❻ 태백산을 오른 순례단이 일상의 순례를 향해 내려오고 있다.
- ❼ 서울YWCA가 2020년 여성평화순례를 주관할 광주YWCA에 평화의 조각보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와 서울YWCA는 9월 30일(월)부터 10월 2일(수)까지 태백·정선·영월 일대에서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2019년 태백산'을 진행했다. 2박 3일간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 특집 ③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2019년 태백산 참가소감



유성희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재외한인여성들이 한민족 디아스포라로서 느끼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3회째를 맞이한 올해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2019년 태백산은 재외한인여성들이 순례길에 동행해 평화의 한 반도를 함께 엄원했다. 둘째 날인 10월 1일(화) 태백산 순례를 마친 저녁에 '여성, 평화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민족 디아스포라(고려인, 조선족, 재미동포, 탈북민)와 대화 시간을 가졌다. 유성희 연합회 상임이사가 진행한 이날 참가자들의 소감을 요약해 실는다.



## 행복하게 순례길 오르다

마순희

탈북민, YWCA 평화포럼단

탈북한 지 21년 되었다. 남북관계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탈북민처럼 통일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자나 깨나' 통일을 생각한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군 사분계선을 오르내리며 희망을 주었는데 다시 분위기가 냉각되어 걱정이다. 남한에서 풍요롭게 산다 해도 우리 웃음은 항상 반쪽자리다. YWCA 여성평화순례가 처음 시작된 2015년 한라산부터 시작해 작년에 지리산, 올해 태백산까지 3회 모두 참여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참가자들 얼굴도 낯설고 서먹서먹했는데, 3년째 되니 행복감을 느끼며 산에 올랐다. 산행에서 힘들 때 배

낭도 대신 짊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평화구나'를 느끼며 정말 행복했다. 남한에 3만4천명의 탈북민이 있다. 탈북민은 목숨 걸고 이 땅에 힘들게 와서 열심히 살지만 정착도 정말 힘들다. 탈북민들은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남한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곳에 없는 요양시설, 복지관을 열고 내 고향에 식당을 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다. 탈북민은 단순히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탈북민이 남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통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 미래'라고 하는데, 탈북민도 포용하지 못한다면 통일 후 남북한이 다 만났을 때 사회통합을 하기 어렵다. YWCA가 탈북민에게 더 관심 가져주기를 바란다.

## 평화를 위해 모인 여성이 자랑스럽다

박을가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열여덟 살인 나는 2016년 열네 살에 한국에 왔다. 고려인 4세대이다. 외국 국적 동포의 범위를 '외국 국적 동포의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의결되면서, 고려인 4세대 후손들도 동포로 인정돼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중학교 까지 마치고 올해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가장 큰 차이는 수업시간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8시부터 1시까지 학교에서 생활했는데, 한국에 오니 5시까지 학교수업을 하고 이후에도 학원을 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나는 한국이 좋고 한국에서 계속 살 예정이다. 2015년도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에 처음 참여했다. 그때는 YWCA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몰랐다. 그런데 올해 한국뿐 아니라 디아스포라들이 모여 평화를 바라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또한 여성이 앞장서 리더로서 일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려인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정말 좋겠다.

## 평화순례에서 시작하는 평화통일

최혜숙

조선족,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부회장



연변민들레협회는 2004년부터 16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우리 협회가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YWCA에서 우리 조선족동포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배려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다. 정말 감사드린다. 현재 200만 조선족 가운데 10만 명이 넘는 동포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선족 동포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부 조선족 동포의 형사범죄가 일어나면 조선족 모두가 범죄집단으로 취급받는다. 또한 일자리에서 같은 노동을 해도 임금이 다르고 임금체불뿐 아니라 무시 받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 우리는 한국인과 한 핏줄이라 생각하고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 우리 조선족을 포용해서 사랑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평화순례에 왔는데, 한국에 있는 10만 조선족을 포용하지 못하면 북한과의 통일을 바랄 수 없다.

## 설레는 마음으로 평화순례길 오르다

김은경

재미동포, 퀴즈YWCA 사무총장



퀴즈YWCA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한 지 1년 되었다. 이번 YWCA 평화순례에 참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YWCA를 보고 배우고 싶어서 오게 되었다. 이번에 '디아스포라' 주제로 연 것에 대해서도 감명 받았다. 뉴욕에 있는 퀴즈는 미국에서도 이민자, 디아스포라가 많은 곳이다. 디아스포라를 어우르며 일하는 퀴즈YWCA로서는 이 힘을 통해 평화운동을 이어가는 한국YWCA의 저력이 대담해보인다. 이번 평화순례는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했으며 평화의 땅 한반도를 소망하는 디아스포라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더 큰 기쁨이다. 오늘을 계기로 미국 디아스포라가 한민족 평화통일에 더 관심가지고 협력하기를 바란다.

# 2019 YWCA 여성평화선언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한반도는 변화의 도상에 있습니다. 2018년 이루어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올해 이루어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는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으로, 오랜 전쟁의 기운을 평화의 물결로 변혁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힘과 연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자주와 독립, 정의와 평화 실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던 국제적 비폭력평화운동의 의미를 기억하며, 정의·평화·생명의 가치 실현을 위한 이 시대의 절대적 사명을 되새겨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단순히 남북의 안위와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계를 확립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임을 천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평화와 불안의 연속으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평화,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평화를 향해, 이 순례의 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순례는 절대자와 깊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반도의 남단 한라부터 최북단 백두까지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임을 확신하고 역사의 증언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에 앞서 산에 올라 피눈물로 기도했듯이 우리는 이 등정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그 부름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순례는 삶 전체에서 일어나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산 위에 정주하지 않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순례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순례가 되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운동을 지속해나간다.
1. 우리는 남북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세계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고통과 분단의 역사를 화해와 평화의 미래로 바꾸어 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1. 우리는 남북 민간 차원의 상시 협의 기구 마련을 통해 다양한 민간교류 협력을 지속하며 한반도 평화의 물결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일에 적극 동참한다.

2019년 10월 1일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2019년 태백산 순례자 일동



양권석 교수가 <자본주의의 페르소나: 소비사회와 윤리적 삶>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소비자본주의 너머의 희망은 있는가

9월 5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제2차 YWCA 미래가치포럼이 열렸다. 김은주 위원장(미디어소통위원회) 진행으로 양권석 교수가 <자본주의의 페르소나: 소비사회와 윤리적 삶>을 주제로 강의했다. 제2차 포럼 강의 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 소비자, 상품,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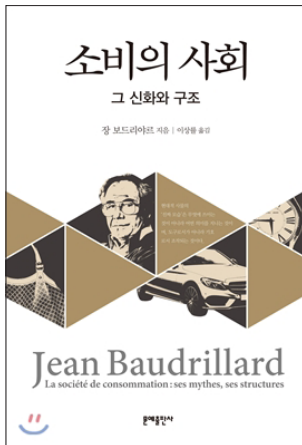
소비자본주의 사회는 상품 소비의 과정이 사람과 생명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사회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소비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일은, 상품 소비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논리와 그 논리의 작동과정을 밝히는 일이라고 했다.

소비의 과정은 소비하는 주체(구매자), 소비하는 대상(상품), 그리고 그 주체와 대상과의 연결을 촉발시키는 필요 혹은 욕망 등이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연결과정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논리가 있고, 그 논리가 사회적 가치와 질서를 구성하면서 우리 시대의 특별한 소비양식을 정당화해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무의식적 논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소비의 주체가 진짜 주체이고 소비의 대상이 정말로 필요한 상품이며, 소비의 욕망은 자연스럽고도 정당한 요구라는 일종의 왜곡된 형이상학적 토대라고 보고 있다.

### 물질주의적 허위의식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와 상품화 과정을 지배하는 논리, 우리가 충분한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무의식적인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형이상학적 토대를 향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은, 사회와 개인들이 별거벗은 물질주의 혹은 황금송배를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포장해내는 ‘허위의식’에 대한 분석으로부터다. 가장 물질중심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그 삶을 가리고 은폐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종의 탈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허위의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시장의 물질적 교환에 맡겨야 하고, 돈과 물질이 모든 것을 구해준다고 믿고 있는 듯한, 빈틈없이 ‘물신숭배’적이 된 이 세상에서, 사회와 개인들은 자신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추구를 하고 있다는 착각이나 환상을 갖는다. 그래서 가장 물질주의적 인간이 가장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인간으로 둔갑한다. 소비자본주의 시대는 가장 물질중심주의적 시대이지만, 동시에 가장 문



**장 보드리야르 저 <소비의 사회>(1970)**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소비의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소비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의 계급질서와 상징적 체계라고 진단했다. 사람들은 생산된 물건의 기능을 따지지 않고 상품이 상징하는 위세와 권위, 즉 기호를 소비한다는 주장이다.

화적인 시대다. 상품소비의 과정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삶의 욕망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만들어낸다.

**물신화과정: 탈물질화와 자유의 타락**

자본주의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과정이 비물질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지된다. 시장의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은 그에 맞는 사회질서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소비의 과정을 비물질적 과정으로 포장하고 세계와 사회질서를 비물질화한다. 상품의 생산자, 소비자, 필요, 욕망 등이 엮이는 사회적 과정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가장 표준적이고 지배적인 틀이 된다.

소비자로서의 가면을 쓰고, 그것을 연기하고 살면서, 그것이 곧 정말 사람이고, 진정한 주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소비자본주의의 소비과정이 제공하는 상상의 질서를 살아가는 상상의 공동체다. 그리고 그 상상의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사회는 자신을 설명해내고 지켜내려고 한다.

**상품화: 사회적 상형문자화**

'제품'(product)이 '상품'(commodity)이 된다는 것은 물질적인 재료들이 채취되고 가공되는 모든 과정, 지극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노동 과정과의 관계를 끊고 그런 과정들과는 관계없이, 시장에서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과정이다.

상품은 소비자에게 기능적 효용에 따르는 사용 가치로 인식되거나,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교환가치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일종의 기호적 표현 양식이 된다. 그래서 노동생산을 일반적으로 알아보기 쉽지 않은 사회적 상형문자로 바꾸어 버린다. 일종의 탈맥락화다. 사물들의 실재와 가치는 돈이라는 시장의 교환수단을 통해서,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내용이 된다. 시장을 향한 재맥락화 과정이다. 이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과정에서 사물과 노동의 실재적 과정에 대한 의도적 무시와 무지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상품과 상품 소비에 대한 허위의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상품선택의 자유**

소비사회가 말하는 자유는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동생산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림으로써 얻는 자유이면서, 동시에 인간관계를 희생해서 누리는 자유다.

상품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 세계에서 모든 상품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궁극적인 상품은 돈이다. 돈은 상품이 만들어 내는 환상세계의 최고의 상품, 보편적 상품, 가장 궁극적 상품이라는 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돈이 모든 것을 정의한다.

인생의 성패, 예술의 성패, 진리성, 아름다움, 선함, 사랑이 모든 가치와 판단들 역시 돈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국 소비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자유는, 돈의 궁극성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자유이며, 그 돈이 지배하는 세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유다. 인간의 모든 윤리적 도덕적 판단마저도, 인간의 자유롭고도 책임적 윤리적 판단 노력에 맡기기보다는, 돈이 지배하는 시장의 거래 과정에 맡겨야 한다는 인간에 대한 깊은 허무에 기초한 자유다.

만물이 '상품화'하는 세계는 모든 것이 팔 것이 되고 살 것이 되는 세계로, 사람과 사물은 물론, 유·무형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이 상품이 된다. 이제 돈은 비로소 만물의 본질이 되고, 만물은 그 본질의 표현이 된다. 그래서 돈의 초월적 위치가 확고해지고 사람들은 이 세계 안에서 결핍과 공포를 느끼면서 돈을 향한 무한추구에 뛰어들게 된다. 노동생산과정의 물질성을 망각하고, 인간관계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며,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연민이나 공감을 매우 초라한 것으로 여기면서 돈을 향한 무한추구의 자유를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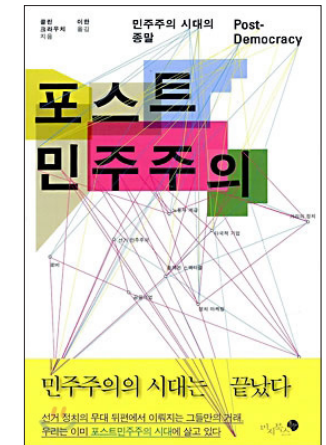
**소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공공 정책과 노동 시장의 변화 문제를 연구해온 영국의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포스트민주주의(Post-democracy)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구화된 소비자본주의 세계 안에서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첫째, 사람들이 스스로 의지를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설득 수단에 의해 의지가 창조되고 조작되는 시대에 들어섰다. 둘째,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상황이다. 셋째, 개인의 원자화와 탈정치화 현상이다. 고객 혹은 소비자로서 시민은 사기업을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만족을 얻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레저와 개인적인 소비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를, 이탈리아 출신의 윤리·정치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는 '변증법 제로의 사회'라고 부른다. 진정한 의미의 이해의 충돌도, 의미의 모순과 갈등도 없고, 진정한 의미의 대화도 없는 사회다. 소비의 만족/불만족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어려워진 사회를 말한다. 이런 사회는 결국 독재사회나 전체주의 사회다. 말하자면 시장 전체주의 사회다.

결국 소비자본주의 사회란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로 구




**콜린 크라우치 저 <포스트 민주주의>(2004)**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기업의 정치권력화로 민주주의 원리가 무력해진 오늘날의 사회를 '포스트 민주주의'로 개념화했다. "오늘날 포스트 민주주의의 원인이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경제적 세계화, 즉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고 단언한다.

성된 사회이며, 정치가 아니라 시장의 소비과정이 지배적인 참여와 표현의 수단이 된 사회다. 그 사회에서 자유는 사람과 생명의 참여를 배제한 자유이며, 나아가 시장 안에서 선택의 자유는 있을지라도, 시장 밖을 바라볼 자유는 전혀 허락되지 않는 감시체제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선택의 자유와 시장을 위한 강권정치(power politics)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결합하여 인간과 생명의 소중한 관계질서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본주의를 무조건 거부한 채 살 수는 없다. 그렇기에 소비자본주의의 인간학과 형이상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인 탐욕적 질서와 가치체계에 희생당하고 있는 인간과 피조물들의 고통에 보다 예리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인간과 소비자, 상품과 사물과 생명, 필요와 욕망과 탐욕, 그리고 자유와 경쟁, 절제와 책임 등과 같은 주제들을 함께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소비자본주의가 야기하는 고통에 대해서, 감성적인 동정을 넘어, 구체적인 연대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기후위기 늦출 방법, 에너지전환이 답이다



2019 YWCA 에너지전환 강사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2019 YWCA 에너지전환 강사 아카데미가 8월 17일(토) 연합회에서 열렸다. 전국 19개 회원YWCA 이사, 위원, 사무총장, 실무자와 환경 및 에너지 강사 등 총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YWCA 에너지 전환 교재 <나는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까>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최지영**  
연합회 중점운동국 간사

한국YWCA는 탈핵 에너지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2018-2019 탈핵생명운동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에너지전환운동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청소년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교재<나는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까>를 발간했다. ‘에너지원의 변천, 기후변화, 에너지 사용 정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총 7과로 구성된 교재는 중·고 교사 및 환경교육 강사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탈핵운동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흐름을 이해하고 YWCA 역할을 모색하며 교재의 효과적 활용을 돕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여는 강의에서 ‘에너지 전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 재각 부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 에너지전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YWCA가 지역에너지 전환 수립 및 에너지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기획과 노력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교재활동 강의①은 신경준 교사(송문중학교, 단원1, 2, 5과 집필)가 에너지원의 변천사와 더불어 현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전기 생산 과정과 문제점 등을 내용으로 강의

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환경 교육을 할 경우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대처방안에 대한 본인의 노하우를 참가자들에게 전수하여 인기를 끌었다.

교재활동 강의②는 이영경 사무국장(에너지정의행동, 단원 3, 4과 집필)이 에너지 사용에도 정의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우리가 함께 그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기후변화는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을 더욱 소외시키므로 정신 건강은 물론 사회적 불평등도 악화시키며 기후위기를 늦출 방법은 에너지전환밖에는 답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정, 학교, 일터 등 생활하는 공간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전력을 절약하고 실천하는 불편함을 이어갈 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재활동 강의③은 윤신원 교사(성남고등학교, 단원 6, 7과 집필)가 지구촌의 달라진 에너지 선택과 앞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강의했다. 또한 기후변화를 주제로 만든 재난 영화 ‘지오스톰’의 한 장면과 미래를 준비하는 독일의 운데, 보봉 마을 동영상을 시청하여 참가자들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있다.



교재활동워크숍에서 ‘에너지 정의 보드게임’을 하고 있다

마지막 교재활동워크숍은 해당 단원의 대표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해보았다. 신경준 교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빙하가 사라진 내일’에 대해 ‘4컷 만화그리기’, 이영경 사무국장은 ‘에너지 정의 보드게임’, 윤신원 교사는 ‘에너지 전환마을이 성공하려면’에 대한 주제로 ‘모둠별 토론해 보기’로 진행해 참가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었다.

2019 YWCA 에너지전환 강사 아카데미는 YWCA가 발행한 청소년 교재를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회원YWCA가 각 지역의 학교들과 연계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본 교육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미래 세대들의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식 확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 사회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가자 소감문**

## 에너지전환 교육,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다



**백혜숙**  
세종YWCA 이사

환경에 무지한 내가 YWCA에서 에너지전환강사아카데미 교육을 받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큰 사건이었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 시작해 1997년에 교토에 모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약속을 하고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195개 국가들이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음을 알게 되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더 끔찍한 재앙이 터져 나오기 전에 화석연료시대를 끝내 탄소중립에 도달하지는 목표를 세웠다는 세계의 에너지선택의 변화기운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가 선택하는 에너지가 지구의 온난화와 직결되어 있음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교육을 마친 후 그레타 툰베리(청소년환경운동가)가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9. 23)에서 발표한 연설을 들었다. “사람들이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돈과 끝없는 경제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중략) 기후위기가 초래한 결과를 떠안고 살아가야 할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툰베리의 연설은 나를 향한 외침으로,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선택에너지’를 한 가지씩 바꾸어가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다. 하루 동안 진행한 에너지전환교육은 충격과 현실에 대한 걱정을 떠안는 것이었지만 우리사회에 절실한 교육이었다.

# 평화를 향한 여성들의 연대의 발걸음

최수산나  
연합회 중점운동국 총괄부장

평화학의 대가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빈곤, 기아,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적극적 평화로 규정한다. 이렇게 볼 때, 구조적으로 젠더화되어 있거나 성차별주의와 결합되어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변화하려는 실천들, 즉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운동은 평화운동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상황에서는 분단과 군사주의와 관련된 영역을 범주화하여 평화·통일운동으로 명명하고 있다.

## 여성과 평화의 연관성

여성과 평화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여성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력에 민감하다는 것 둘째, 군사주의가 여성차별주의와 깊은 연계를 갖고 있다는 것 셋째, 여성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평화에 주체적 참여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일상적 삶에서 빈번히 발견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한반도 식민지와 분단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현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부분은, 2000년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문 1325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결의문은 분쟁 예방, 평화 유지나 정착을 위한 조직, 정책, 교육에 여성의 주도적 참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여성과 평화안보에 관한 내용이다.


평화는 단순히 군사적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민·민간사회 안에서 비폭력적 갈등해결 관점과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국경을 넘은 국내 여성들의 평화운동

1970년대 교회여성연합회에서 시작한 원폭피해자지원 운동을 국내 여성 평화운동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교회여성들의 통일희년운동과 한국YWCA의 한민족 여성대회, 2002년 금강산 남북여성통일대회 등은 민간 주도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새겨준 발자취들이다.

국내 여성들은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한국의 분단 상황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구하고자, 2015년부터 DMZ 걷기를 계획·실행해왔다. 한국YWCA가 한마음으로 엮어낸 1,000개의 천으로 만들어진 조각보는 화합과 연대의 의미로 이 행사의 감동적인 상징이 되어왔다.

국경을 넘은 여성들의 연대활동은 2020년까지 한반도 종전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Korea Peace Now!’ 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국여성연대 4단체가 함께하는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와 더불어, 국제단체들(WILPF, Women Cross DMZ, Nobel Women's Initiative)이 함께 한다. 이 캠페인은 미 의회 방문과 UN 대상의 주창 활동으로 시민 공공 외교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향한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가기 위한 연대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

평화운동을 위한 여성들의 발걸음이 중요함은, 곳곳에서 작은 평화, 작은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냄으로써 거대한 평화의 물줄기를 바꾸어낸 국제적 경험과 결과들에서도 알 수 있다. 국내 여성들의 지역과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 이해와 문화 확산, 교계와 시민사회를 통한 남북 교류와 협력,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공공외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중한 과정들은,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프로세스 구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 평화를 위해 여성이 일한다

한미미  
연합회 실행위원, 세계YWCA 부회장

20세기는 인류역사상 가장 잔인한 세기였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다. 이 전쟁들은 거의 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다.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억울한 고통을 겪은 민족은 바로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서구 선진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약소국가들을 강제 침략, 점령하고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며 경제적으로 착취한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승전국들은 태평양과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 지배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부당하고 억울하게 분단되었다.

우리는 분단을 원하지 않았다! 5,000년 넘게 우리는 한 민족, 한 나라였다. 35년간 일본 강점기 이후 독립과 자유를 고대했지만, 대신 뼈아픈 분단과 4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잔혹한 한국전쟁을 겪어야만 했다. 69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열전과 냉전의 가장 큰 피해자, 여성 그리고 아이들

내년이면 한국전쟁 70주년이다. 3년의 열전(Hot War)이었던 한국전쟁은 66년 전 끝났어도 냉전(Cold War)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열전, Hot War는 물질적 폐허화를 초래했지만 냉전, Cold War는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적대화하면서 정신적 폐허를 초래했고 더 나아가 내부적 갈등과 분열까지 심화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다.

이런 열전과 냉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다. 여성과 아동이 존엄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새 질서를 만들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여성들이 외치는 ‘평화’다.

단순히 무기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이 평화가 아니라, 경제·사회·교육·문화에 통합적인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




글로리아 스타이넴(Gloria Steinem)을 포함한 미국, 한국, 일본 여성활동가들이 9월 20일(금)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반도 종전을 촉구하고, 평화협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서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성이 참가해야 함을 강조했다.

고 여성들은 믿는다.

여성이 평화프로세스에 참여할 때 15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35% 높다는 연구발표들이 있다. 1991~1992년 분단 이후 첫 남북 여성 교류였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위해 남북 여성들은 판문점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국제여성평화활동가들이 2015년에 그 유산을 이어 ‘국제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를 통해 DMZ를 또 걸었다. 여성들이 분쟁, 분열, 분단의 상징뿐 아니라 고통의 현실이자 현장인 DMZ를 평화의 이름으로 걸은 것이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몸소 몸을 통해 세상에 평화를 말하고자 길고 좁고 험한 평화의 여정을 여성들은 함께 걸어간다. DMZ를 전쟁, 고통, 공멸의 땅에서 평화, 치유, 상생의 마당으로 ‘해결하고, 회복하고, 재건하고, 재생시키고자(Resolve, Restore, Rebuild, Renew(4 R))’ 오늘도 주님이 주신 ‘평화만드미’의 소명을 위해 여성들은 함께 일한다.

“평화는 나무와 같다! 나무가 아래에서 위로 자라는 것 같이 평화도 아래에서 위로 자라야 된다”고 말하는 글로리아 스타이넴, 국제평화활동가이자 페미니스트인 그녀의 말을 되새겨 본다. 풀뿌리 시민운동과 국제 연대를 통해 세대와 국경을 넘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여성들은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 “계급(class)이 아니라 원(circle)으로”

홍하늘

연합회 정책기획국 간사



'영페미니스트, Gloria Steinem에게 묻다' 참가자들



글로리아 스타이넘

'영페미니스트, Gloria Steinem에게 묻다' 대화모임이 9월 20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세계적인 여성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만난 약 90명의 참가자들은 70년대부터 페미니즘 운동을 해온 스타이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페미니즘의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한반도와 세계 평화운동에서 여성의 역할과 실천과제를 나누었다.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대화모임 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 2015년 '국제여성평화간기'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지금의 한국이 더 희망적으로 보인다. 2015년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여성 30명 중 한 명으로 비무장지대를 넘었을 땐 논란이 꽤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했고, 9월 19일에 열린 '경기DMZ포럼'에서도 종전과 통일을 희망하는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더욱 희망적이다.

## 지금까지 페미니스트로 살아온 당신의 동력은 무엇인지?

여성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동력이다. 여성으로 태어나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 어떻게 하면 여성과 남성의 평화적 공존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우리는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부장제는 사회뿐만 아니라 각 사람 안에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가부장적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유일무이한 기적의 존재들이며 유전자와 환경의 조합에 의해 각자 독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부장제는 모든 계급의 시작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급이 아닌 원(circle)으로 함께 있어야 한다.

## 세대 간 격차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후배들과 소통을 하시는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기획하는 것은 중요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누군가의 의견에 반대해도 괜찮다. 우리는 각자 믿고 있는 것과 각자의 기획 방법을 토대로, 함께 기획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 영페미니스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으신지?

내가 만든 페미니스트 잡지<Ms.>에서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사를 게재한다. 진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괜찮다. 당장 그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만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즉각적으로 민주주의가 생긴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페미니즘은 민주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 탈코르셋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신의 몸을 꾸미던 안 꾸미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직장이 직원에게 의상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 수 없다. 우리의 몸을 꾸미는 것과 입고 싶은 것을 입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 '미러링'을 처음 접했을 때 통쾌하고 각성효과가 있는 전략적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러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유익한 방법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했던 모진 말을 남성에게 다시 함으로써 본인은 어떤 감정이 드는지 되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러링' 전략이 유익한 결과로 이어질 경우에만 사용해야 할 것 같다.

## 앞으로 청년 세대의 여성들이 이 평화운동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지?

여성이 평화운동을 한 예는 정말 많다. 북아일랜드 분쟁 때 양쪽 여성들이 함께 모였고 라이베리아 내전 때도 여성 인권운동가 리마 보위(Leymah Gbowee)가 평화운동가로 활동했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무장해제 시켰고 더 이상 이 전쟁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평화는 나무와 같다. 평화는 위에서 아래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같이 아래서 위로 자란다.

## 페미니스트로서 평화운동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미국의 여성으로서 한국 평화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여성이 협정 과정에 참여할 때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페미니즘과 평화운동의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집중하는 이유는 한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다. 2015년 '국제여성평화간기' 참가자들은 모두 페미니스트였다.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변화가 보인다. 한국과 북한 지도자들이 만나서 악수를 할지 누가 알았는가? 우리는 여성의 힘을 믿었다.


## 남북의 평화통일운동을 위해 탈북민인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당신의 생각을 따르길 바란다. 당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북한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탈북여성들과 만나고 대화하면 좋겠다.

## 20대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 괜찮을거야”라고 말해주고 싶다. 내가 20대일 때는 정해진 방향대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꼭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며 남편의 인생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계속 미루다보니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스무살 때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이 방에 모인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시간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 함께 모이는 것이 운동(movement)의 전부이고 페미니스트 운동이 존재하는 이유다. 



2019년도 한국YWCA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회원대표, 실행위원, 실무활동가들

2019년도 한국YWCA 정책협의회가 10월 15일(화) 서울YWCA 강당에서 열렸다. 새로운 YWCA를 위한 법인 재구조화 방향과 부속시설 신(新)운영정책(안)을 협의하고, 2018-2019 YWCA 중점운동 평가를 기반으로 2020-2021 운동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52개 회원 YWCA 대표와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실무활동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여는 예배에서 강교자 연합회후원회 이사장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설교를 통해 변화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며, YWCA가 힘들더라도 철저한 치료와 체질 개선의 노력으로 본연의 목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앞으로의 100년도 건강하게 활동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YWCA는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 기획과 구조개편, 회원YWCA 현안문제 해결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 2월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에서 '한국YWCA 조직 재구조화', '미래기획', '청년YWCA운동'을 핵심과제로 결정하고 YWCA 부속시설 신(新)운영정책(안) 마련, 지역운동 지원을 위한 3개법인 재구조화, 지역공동체로서의 지역YWCA 자립 지원, 한국YWCA 100년 운동 역사 아카이브 구축, 한국YWCA 구조연구 및 전환, NGO청년리더십 육성, 지역 청년운동 활성화를 세부 과제로 선정했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 YWCA 정체성에 부합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운동조직을 위해 운영 기반 재구조화를 위한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한영수 연합회 회장은 '한국YWCA 법인 재구조화 방향 제안' 발표를 통해, 한국YWCA 재구조화의 방향은 100년 이후의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한국YWCA 세 법인(연합회, 후원회, 복지사업단)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한국YWCA가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로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고, 회원YWCA의 자치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사회에서 책임있는 운동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적으로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국YWCA 법인이 부속시설의 운영책임을 가진 거대법인으로 존재하기

는 불가능하므로 회원YWCA의 법적형태 보안을 통한 법적책임의 분권화가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향후 회원Y는 중앙법인에서 독립하여 지자체에서 각기 적합한 형태의 법인격을 획득하거나 비법인사단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 회원YWCA는 운동을, 부속시설은 시설 설치목적에 근거한 전문운동을

한국YWCA는 1950년 이래로 부속시설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며 YWCA정체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부속시설이 위탁시설 운영 형태로 전환되면서 본부의 핵심사업과 지도력이 부속시설로 이관되는 등 지역운동의 중심이 회원YWCA 본부가 아닌 시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부의 운동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174개에 달하는 부속시설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한국YWCA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지난 4월 연합회 임시총회를 통해 부속시설 전수 특별조사를 통해 부속시설 신운영정책을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부속시설 특별조사를 책임맡아 진행한 손병덕 교수(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특별조사의 결과와 이에 따라 YWCA가 보완, 개선해나가야 할 내용들을 발표했다. 손교수는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회복'이 가장 큰 화두임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엄격한 운영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원영희 연합회 제1부회장이 부속시설 특별조사 결과를 반영한 '한국YWCA 부속시설 신(新)운영정책(안)'을 제안했다. 부속시설 신(新)운영정책(안)의 기본은 YWCA정체성에 근거한 '운동'의 중심이 회원YWCA(본부)임을 분명히 하면서 지역의 부속시설은 각 시설의 설치목적에 근거한 '전문 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법인 또는 회원YWCA(본부)는 각 시설의 고유목적에 근거한 전문운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에 집중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 탈핵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 운동 지속해야

마지막으로 이종임 연합회 제2부회장이 '2020-2021 YWCA 운동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2018-2019 한국YWCA 운동정책에 대한 회원YWCA 평가에 따르면 4대 운동정책을 실행하며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한 회원YWCA는 성평등운동 44개Y, 탈핵생명운동 39개Y, 청(소)년운동 36개Y, 평화운동 24개Y로, 지역사회에서 한국YWCA 운동이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탈핵과 성평등운동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함을 제안했다. 한국YWCA 운동정책은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특별히 내년에는 21대 총선, 2022년에는 대선이라는 해로, 촛불혁명 이후 대두된 국민주권과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므로 지역과 국회에서의 여성 대표성 및 다양성 확대, 여성혐오와 폭력 근절, 기후변화 대응, 탈핵에너지 전환과 자립, 그리고 남북협력과 동북아평화체제 구축 등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것임을 전망했다.

YWCA 내부적으로도 2020-2021년은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바로 앞둔 해로, YWCA운동이 일상의 변화, 나아가 제도적 변혁으로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의 3대 운동과제와 더불어 청(소)년운동을 공통과제로 제시한 안과, 이 네 운동과제 중 탈핵생명운동과 성평등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전개하는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대표들은 협의를 통해 3대 운동과제를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안을 2020-2021년 한국YWCA 운동정책안으로 내년 정기총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한국YWCA가 핵심 운동을 전국이 함께 추진하는 중점운동으로 결정하여 진행해오던 운동추진 방식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권경미 서부지역위원장의 기도로 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대표들은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새로운 YWCA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제5차 길 위의 평화포럼 참가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엄에스더**  
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

지난 4월부터 시작한 2019년도 '길 위의 평화포럼'이 제 5차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길 위의 평화포럼'은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다섯 차례 진행 후, 마지막 대포럼에서 태백산을 등정했다. 올해 포럼은 '국제정치와 한반도 정세를 통한 남북관계 이해'를 주제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과 주변국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평화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합회 위원, 회원YWCA 회원, 북한이탈주민 청년회원 등 39명이 포럼단으로 참여했다.

### 포럼 한눈에 읽기

1차 포럼(4.18)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주제로 조성

렬 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이 강의했다. 최근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내용들을 다시 짚어보았다.

현재 미중일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평화체제 이후의 동북아 질서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이다. 미중무역전쟁과 '신냉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동아시아에 신질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운전자가 되어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동북아 신질서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구상과 '신한반도 체제'를 잘 구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2차(5.16)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북한의 정치 및 권력관계'를 주제로 '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5대 권력기관의 역할, 당의 위상과 '영도적 역할', 국가(기구)의 위상과 '집행자'역

할, 군대의 위상과 군사지도지휘체계에 대해 정성장 본부장(세종연구소 기획연구본부)이 강의했다.

김정은은 현재 북한 권력체에서 당과 국가, 군대 위에 군림하는 스탈린식 '수령'의 지위를 갖고 있고 김정은 출범 이후 북한에서는 노동당 간부들과 경제 관료들, 외교 엘리트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전통적인 군부 엘리트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군사중심이었다면 김정은은 경제성장 중심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3차(6.20)에서는 '북한청년의 생활과 의식'에 대해서 김은주 소장(한국여성정치연구소)이 강의했다. 8090세대(일명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최근 탈북민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통해 최근 북한청년들의 생활과 의식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평양은 북한에서는 잘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평양과 지방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한다. 최근 탈북유형은 생계형에서 자유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북한에서 자유의 크기는 돈/권력의 크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북한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돈/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4차(7.18)에서는 '근대사 속 북한의 기독교'를 주제로 박혜진 연구원(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이 강의했다. 북한의 개신교는 1900년대 초 부흥운동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 평양대부흥 운동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105인사건과 31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는 것, 평양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 신사참배를 거부한 순교자들, 해방 후 북한 교회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내가 아는 탈북민은 5대째 신앙인이다. 북한 안에서 평양대부흥을 경험한 신앙인들이 여전히 믿음을 이어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5차(9.19)에서는 '신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시민사회 과제'를 주제로 조봉현 소장(IBK경제연구소)이 강의했다. 신한반도 체제와 북한사회/경제, 한반도 신 경제체제 구상과 한반도의 희망, 시민사회 과제 등을 배우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생각해보았다.


탈북민인 나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조금 당황했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통일을 원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이유는 통일세금을 감당하기 싫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강사들은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야기 한다.

### 서로 존중할 때 신한반도 경제공동체 가능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비를 잘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남한과 북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할 때 함께 잘 사는 신한반도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시민들의 과제는 서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 탈북민과 자주 만나, '사람과의 통일'을 먼저 경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은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유재산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빈부격차가 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대량 탈북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90년대에 탈북한 사람들도 최근 북한의 변화에 놀란다. 어떤 방식의 통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배우고 있다. 또한 올해 'YWCA한민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태백산'을 통해 탈북민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 때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을 더 알아가며 궁극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길 위의 평화포럼'은 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북한을 알아가야 하고, 함께 신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며,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가 무슨 일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제1차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아카데미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성혜란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변화무쌍한 현장에는 공부가 필요하다

제1차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아카데미가 지난 9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여성인력개발센터(광주, 광주북구, 군산, 노원, 논산, 대구, 마산, 목포, 부산해운대,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여수, 영등포, 인천, 진주, 창원, 천안, 춘천, 충북, 포항) 관장 22명이 참석했다.

관장 아카데미의 시작은 지난 7월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협의회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그룹별 토의에서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현장은 왜 이렇게 힘들고 변화가 많은지, 어떤 방향으로 운영 혹은 경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저마다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했다. 그만큼 수많은 제도가 생겨났으며 그 제도 변화에 맞춰 가야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어느 때보다 숨 가쁘다. 하기가 센터 관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지난 10년 동안 어느 해인들 쉽지 않은 적이 없었고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을까. 그만큼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변화무쌍한 곳이 이곳 현장이다.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협의회’는 새 임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임관장들이 대다수다. 그러다보니 선배들은 선배들대로 아쉬움이, 후배들은 후배들대로 갈급함이 있다. 이 변화무쌍한 현장에서 “우리 공부 좀 제대로 해보자”하는 외침에 태어난 것이 ‘관장 아카데미’다. 관장 아카데미는 교육, 훈련, 역량개발 등 HRD를 중심으로 1년 이상의 체계적인 관장 교육을 목표로 한다. 올 하반기는 우선 1박2일, 2회차 교육을 시범운영하며 아카데미 운영의 틀을 기획해나갈 예정이다.

첫번째 강의 ‘인력개발론’은 고혜원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 강사로 나섰다. 직업훈련의 이론적 고찰을 설명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 운영의 도입과 변화,

대구직업전문학교의 운영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여성 고용에 대한 취업자 수 추이와 성비현황을 표로 제시하여 여성친화 증가/감소 직종, 여성구성비 증가/감소 직종 추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시간은 조은영 박사(연합회 실행위원, 조우코크리에이션 대표)가 ‘코칭리더십론’을 강의했다. 우리의 역할이 매니저인지 리더인지 확실히 분별하게 해준 시간이었다. ‘실무자는 본인의 업무만 잘하면 되고 관리자(매니저)는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하지만 리더는 모든 것을 다할 줄 알아야 한다’ ‘매니저는 사람의 활동을 바꾸지만 리더는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 ‘사람은 성격은 바뀌지 않지만 행동은 바꿀 수 있다’라며 경청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강의였다. 팔로워에게 한 번의 지적을 하려면 그에 앞서 아홉 번의 칭찬을 밑자락에 깔아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칭찬)노트가 필요하다는 기술적인 방법도 배웠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대표 직업정보보고서인 ‘2019한국직업전망’의 저자이기도 한 박가열 박사(한국고용정보원)가 ‘직업훈련 시장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자신의 대학교 학생회장 출마사진과 변화해가는 본인 사진

을 보여주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로 강의 포문을 열었다. 하물며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직업은 당연히 변해갈 수밖에. 우리의 일과 직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하나로 꿰어 설명했다. 이어서 “일·학습·생활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하며 여성의 전문성교육을 강화해 ‘성분리장벽직종’ 진입을 추진해야한다”는 도전과제를 말했다.

2차 아카데미는 오는 10월 16일(수)부터 1박 2일로 열린다. 여성노동시장의 흐름과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론(정성미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용정책을 배경과 흐름을 알아보는 고용정책론(권혜자박사/한국고용정보원), 여성인적자원개발의 방향성을 알아보는 인력경영론(임희정교수/한국사이버대학교경영학과), 고용서비스 정책변화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방향(길현종박사/ 한국노동연구원)을 알아보고 올해 아카데미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배우는 동안 성공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제 이 말을 수강생을 향한 격려가 아닌 관장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보려 한다. Y관장아카데미, 파이팅!

### 참가자 소감문

## 여성들에 의해 성장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되기를 바라며



허성숙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오랜 시간을 뒤로하고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7개월이 지났지만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교육과 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의 문제를 다 헤아리며 답을 찾아가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신임 관장으로서 역량을 쌓기 위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있을 차녀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들의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정책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관장아카데미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에 알맞은 교육이었다. 1회차 교육을 통해 관장으로서 가져야 할 리더십과 직업훈련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면, 2회차에 이어질 고용서비스 정책변화, 여성인력경영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과 정체성 교육을 통해 많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크다.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여성들에 의해 움직이며 성장하는 YWCA여성인력개발센터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 안에서 관장 아카데미를 통한 관장들의 역량 강화가 큰 힘으로 작용하리라 믿는다.



## 기독교여성주의 관점 여성폭력시설에 더욱 필요하다

YWCA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들이 각 시설의 현안과 이슈를 나누며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현주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장

제2차 YWCA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이 9월 20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회원YWCA가 운영하는 가정·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쉼터, 지원시설 소장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별 현안을 논의하고 기독교여성주의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YWCA 여성폭력시설장 네트워크 모임은 전국YWCA가 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때 필요한 정보를 교류함은 물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책적인 고민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번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은 '성평등한 세상, 우리가 만들자!'를 주제로 열렸으며, 상담소와 쉼터 등 시설별 현안과 주요 이슈를 토론하고,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성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시설별 현안과 이슈

각 시설별 현안과 이슈에 관한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상담소 시설장들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의료 등 동행지원을 위한 운영전반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무료법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만나거나 연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낮은 예산으로 인한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과 중간관리자를 양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가정폭력상담소 그룹에서는 지역별로 민, 관, 경이 연계하여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에 대해 전개하고 있는 모니터링 활동을 공유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나누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위기가정지원센터를 통해 112신고 가구를 대상으로 절차에 따라 상담, 법률, 사례관리, 복지, 의료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

다. 이외에도 경찰에 상습적으로 신고되는 가정을 상담소와 연계하고 월 1-2회의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과 상담, 복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이 현장에 상담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주야간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비상연락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담소 근무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지 않아 폭력현장 동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결국 피해자를 돕고자하는 상담소의 본질과 충돌되는 상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셋째, 쉼터에서는 장애인 및 경계선 성격장애로 추정되는 입소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입소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쉼터는 입소자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YWCA가 운영하는 누리봄쉼터는 입소자들이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이 모임에서 자원 활동가로 나서 쉼터에 도움을 주거나 후원자로서 성장하고 있는 사례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종사자 처우의 문제이다.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상담원의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쌓일 새 없이 이직하는 비율이 높다보니,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 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개선을 통해 내담자들에게도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혈을 넘어 사랑으로-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낙태죄, 성소수자'

백소영 교수(강남대학교)는 '성윤리에 대한 기독교 여성주의적 응답'을 주제로 강의했다. 평소 폭력피해자, 여성폭력피해자를 도우며 여성주의적 사고를 하려 노력했지만, 오랫동안 교회에서 교육받아온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다. 생각을 바꾸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외면함이 쉬웠고,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반박할 논리나 확신도 그리 깊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강의는 명쾌한 답변과 몇 가지 강한 메시지를 남겨주었다.

후기 근대사회에서는 성과 재생산이 직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성 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사회에서 성서가 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읽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성서를 읽을 때에는 전체의 맥락과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소돔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롯의 집에 머물게 된 천사, 즉 이방인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던 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방인에 대한 환대는 기독교 정신의 정수이다.

올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처럼 여성의 몸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경줄'과 '위줄'로 성경 이해

백소영 교수는 성경을 '경줄'과 '위줄'로 구분하고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경줄'은 하나님의 계시, 변하지 않는 진리로 어떤 상황 누구에게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이다. '위줄'은 시대와 상황에 의해 변할 수 있고 그 시대를 살아내는 진리이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경줄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는 그 시대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시대적 관점을 반영한 삶의 방식이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일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워크숍을 통해 배우고,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들과 신념을 점검하게 된다. 더 알아야 하고 고민해야 할 숙제들도 많지만, 여성폭력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YWCA 동료들이 있어 힘을 얻는다. 이 동료들과 함께 한국YWCA가 여성폭력을 올바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대한다. 



참가자들이 VR기기를 활용하여 신용과 부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구해줘 홈즈' 보드게임을 하고 있다.

홍수진

연합회 협력사업팀 팀장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 연합회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2019년 9월 4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된 팝핀 교육은 안산 부곡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참여했다. 아침 일찍부터 지역에서 팝핀 교육을 듣기 위해 참석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설렘과 기대가 느껴졌다.

한국YWCA연합회의 활동 소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듣고, 팝핀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조별 이름을 정하며 낯선 분위기를 깨트렸다.

참여한 학생들 중에는 학교 선생님의 성함으로 조 이름을 정하기도 했는데, 평소에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고 금융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성함을 조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어쩌면 가볍게 웃고 지나칠 수도 있는 설명이었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교육의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팀 빌딩 후 학생들은 각자가 받는 용돈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누고, 처음으로 직접 본인의 용돈에 대한 소비 계획을 세워보았다. 본격적으로 팝핀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문제풀이 미션이 진행되었고, 태블릿 PC로 QR 코드를 스캔하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조별로 문제를 풀었다.

학생들 각자 장애의 형태가 다르고 이해의 수준도 다르기에 생소한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당황하고 문제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 실패의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조별 학생들끼리 서로 협동하고 옆에서 함께 움직이며 도와주시는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한 문제씩 풀어나가며 작은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조별로 미션을 완성한 후에는 명동 지역을 여러 가지 테마로 나눠 야외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를 가정해 보고, 실생활에서 올바른 소비 습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며 처음에 특수 학급에서 팝핀 교육

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걱정이 무색할 만큼 질서정연하게,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교육을 진행하는 실무활동가로서 스스로의 편견을 깨는 날이기도 했으며, 그 무엇보다 금융교육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여전히 많고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낀 날이기도 했다. 활동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태블릿을 통해 경제 교육을 접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교실 밖의 실물 경제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발표했다.

### 씽크머니 팝핀(Pub-Fin, Public Financial Education Station)이란

2017년 연합회에서 시작한 씽크머니 팝핀(Pub-Fin, Public Financial Education Station) 교육은 연합회 명동 팝핀 교실 1호를 시작으로 수원YWCA에 팝핀 2호를 작년 11월에 개소하였다. 팝핀은 기존에 교재로 진행되었던 이론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PBL(Problem-based learning) 방식의 금융교육 형태로 기획되었으며, 수업 전에 예산계획과 소비에 대한 동영상 선학습하고, 수업 시간에는 태블릿 PC에 탑재된 금융교육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예산계획과 소비, 저축, 기부를 해보는 금융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작년까지 총 2차시의 강의가 개발되었으며, 팝핀 1차시는 합리적 금융생활 이해와 금융지식과 소비습관 이해에 관한 내용, 2차시는 예산, 수입, 지출의 개념을 이해하여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 친구들을 위한 1일 여행 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씽크머니 전문 강사와 실무 활동가들이 협업하고, VR 기기를 활용하여 신용과 부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구해줘 홈즈'라는 보드게임을 개발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신용과 부채라는 주제를 보드게임을 통하여 일상의 소비생활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이 태블릿PC로 QR코드를 스캔하며 문제를 풀고 있다.

현재 연합회와 수원YWCA의 팝핀 교실을 포함한 총 8개의 회원YWCA에서 '찾아가는 팝핀'으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팝핀 교육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YWCA연합회는 청소년들에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2006년부터 씨티재단의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씽크머니' 둘째,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지정받아 운영하는 '수도권지역경제교육센터' 교육이다. 씽크머니 프로그램이 금융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지난 10년 넘게 전국 여러 지역에서 내실을 다졌다면, 수도권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은 우리사회의 약자, 소위 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 금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특화된 대상에게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YWCA 금융·경제 교육은 교육 대상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의 금융·경제 교육 접근성과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역할은 건강한 금융·경제교육에 대한 가치가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소외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교육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역량 있는 실무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황애덕(黃愛德, 1892.4.19~1971.8.24)

# 피폐한 농촌을 살리고 여성들이 각성을 위해 애썼던 YWCA 초기 지도자 황애덕

이윤숙

연합회 정책기획국 부장

황애덕은, 김활란, 김필례, 유각경과 같은 초기 YWCA 설립자들에 비해 그의 삶과 YWCA 활동들이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그 치열한 삶이 조금씩 다시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그 누구보다 피폐한 농촌을 살리고, 가난과 억압 속에 신음하던 농촌여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온몸을 다 바친 농촌계몽운동가, 여성운동가로서의 면모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아, 그의 삶과 정신을 다시 새롭게 이해하고 널리 알리는 일들이 절실해진다.

##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한 열혈 운동가

황애덕은 구한말인 1892년 평양에서 1남 6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다섯째 아이를 낳다가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의 산고를 겪었는데 그때 선교사이자 의사인 로제타 셔우드 홀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이를 계기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덕분에 그의 이름도 세례명인 황에스터로 바뀌었고, 'Esther'를 차용하여, '황에시덕' 그리고 '황애덕'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기독교와 개화독립사상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황애덕은 배움에 대한 열의가 유달리 강해서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정진여학교에 다니고자 하였고, 나중엔 의사 로제타 홀이 추천해 주어 이화학당에 진학한다.

졸업 후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온 그는 송의여학교 교원이 되었는데,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1913년에 항일비밀결사조직인 '송죽회(松竹會)'를 결성하여 항일독

립운동에 헌신하게 된다. 그는 1915년, 의사가 되기 위해 도쿄로 일본 유학을 가서도 김필례, 나혜석, 김마리아 등과 함께 도쿄여자유학생친목회를 조직하였고, 여성의 각성과 계몽을 위한 기관지 <여자계(女子界)>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때마침 공표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의해 고무되어, 31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된 도쿄 조선인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까지 이어지게 된다. 28 독립선언에 적극적 역할을 하던 황애덕은 일본경찰을 피해 비밀리에 조선으로 귀국하였고 31운동에 가담하여 항일운동을 위한 여성들의 조직화를 모색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황애덕은 약 5개월 간의 감옥 생활을 마친 후, 31운동에서 확인한 여성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일시적 형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이다. 이는 김마리아, 신의경 등 여성 지식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성들까지 망라하여 조직한 항일 여성단체였고 상해임시정부의 여성대표기관이기도 했다. 하지만 활동한 지 두 달 만에 간부 전원이 체포되면서 황애덕도 체포되었고 김마리아 등과 함께 온갖 잔인한 고문과 폭력을 견뎌야 했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폭압은 더 거세어졌지만 황애덕의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는 더욱 커져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3년 여 동안 대구 감옥에서 만난 식민지 가난한 민중들에 현실에 대한 자각과 이들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졌고, 엘리트 중심의 운동에서 벗어나 식민지 농촌현실을 바꾸기 위한 농촌계몽운동에 뜻을 가지게 되었다.

## 최용신의 스승, YWCA 농촌계몽운동을 이끈 선구적 지도자

31운동 이후 일제의 폭압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독립운동의 방향이 실력양성운동 등 개량주의 흐름과, 일제와의 모든 타협을 거부하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흐름으로 나뉘어갔지만 이 두 세력 모두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되었고, 그 주요한 민족협동전선의 장은 바로 피폐한 농촌이었다.

1920대 중후반부터 YWCA는 농촌현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농촌여성들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미 YWCA 지도자 김활란은 신흥우 등과 함께 덴마크 농촌을 시찰하면서 농촌사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던 터였다. YWCA는 1927년에 농촌여성들에게 한글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식을 보급하고 인격을 수양하게 하기 위한 '수양부'를 설치하였다. 이듬해 1929년에 YWCA는 본격적으로 '농촌부'를 설치, 농촌계몽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의 YWCA에도 이에 호응하여 문맹퇴치와 농촌개량 등의 사업을 펼쳐갔다.

한편 황애덕은 대구감옥에서 나와 이화학당에 편입하여 졸업하였고, 여자야학운동 등 YWCA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 1924년에는 제2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한다. 그 다음 해에 황애덕은 미국 유학을 떠나 콜롬비아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출국 후 줄곧 품어왔던 농촌계몽운동의 뜻을 펼치기 위한 방편으로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농학과에서도 수학한다. 그는 귀국하여 콜롬비아대학에서 만난 선교사 채핀부인의 주선으로 협성여자신학교 교수로 부임하면서 때마침 관심이 고조되어있던 기독교농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1929년부터 1934년까지 황애덕은 조선YWCA연합회 농촌부 간사 겸 연합위원으로 농촌계몽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때 자신의 제자이면서 그 유명한 소설 상록수의 실제모델인 최용신을 YWCA 농촌사업 담당자로 파견한다. 이때 YWCA 농촌사업의 주요과제는 피폐하기 이를 데 없던 식민지 농촌




1930년 전방 '우리는 어떻게 할까'에서 황애덕이 YWCA 운동을 소개한 기사(동아일보1930. 1.1)

민중들의 생활 향상시키고 농촌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농민교육, 농촌보건위생, 농민협동조합, 농촌부업 장려 등이었다. 스승인 황애덕의 뜻을 이어받아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최용신은, 제9차 YWCA 정기총회에서 농촌 문맹퇴치와 농촌사업 증진에 대해 보고하기도 하지만 그 무렵엔 이미 농촌여성지도자교육 중심으로, 농촌사업의 중심이 전환되던 때였다. 이후 일제의 탄압이 노골화되며 농촌사업에 대한 재정확보가 어려워져 급기야 최용신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기에 이르자 YWCA농촌운동은 점차 축소되고 만다.

황애덕은 이후 YWCA를 비롯한 국내활동을 접고 만주에 가서 농촌계몽운동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또 다시 분투하지만 일제침략전쟁의 확산으로 다시 귀국하면서 일체의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하다가, 해방 후에는 YWCA연합회 이사와 '여성단체총협의회' 초대회장으로서 활동했다.

## 비타협적으로 일제에 끝까지 맞선 Y지도자

황애덕은 각성한 여성지식인으로서 독립운동에 뜨겁게 투신했고 또 감옥에서 만난 식민지 조선민중들의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계몽운동, 협동조합운동 등을 온갖 시련과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실천해왔다. 그는 그 실천의 장으로서 YWCA를 택해 농촌사업을 이끌었고, 비록 최용신의 죽음으로 그 뜻을 다 펼치지는 못했지만, 그 활동들을 통해 YWCA 농촌사업의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대구감옥에서 고초를 겪을 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성구를 읽으면서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그의 뜨거운 신념과 의지는 일제에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맞선 YWCA 지도자의 리더십으로서 오늘날 다시 영예롭게 빛난다. 

# 공연 내 성별의 장벽을 허물자 벌어진 일 - '젠더프리' 캐스팅

김민주

연합회 미디어소통위원회 위원

무대 위 꾸며진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두 명의 여성. 그들은 서로를 필립, 트랏이라고 부른다. 이 문장에서 어색한 점을 찾으셨는가. 바로 '필립'과 '트랏'이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이름을 여성이 부르다니. 그들의 이름만 그렇고 사실은 언니, 동생일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필립(동생)은 트랏에게 '형'이라고 외친다. 그렇다. 두 명의 여배우들은 '남성 캐릭터'를 연기한다. 고정관념 속 남자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평소 그들의 외양 그대로 무대에 등장한다.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이런 모습은 최근 연극, 뮤지컬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다. 대체 공연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바로, '젠더프리' 캐스팅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 Gender-Free, 성별에서 자유로운

'젠더프리' 캐스팅이란 배우의 성별에 구애 받지 않고 배역을 정하는 캐스팅을 의미한다. 대본에서 캐릭터의 성별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배우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게 설정해둔다든가, 혹은 여캐릭터에 남배우를, 남캐릭터에 여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극과 뮤지컬에서 남캐릭터와 남배우의 비중이 높아, '젠더프리'로 캐스팅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남배우가 맡아왔던 캐릭터를 여배우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젠더프리' 캐스팅 자체가 올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다. 2015년 뮤지컬 <저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2016년 뮤지컬 <트레이스 유>에서 기존에 남배우가 맡아왔던 역할을 여배우가 하기도 했다. 그러나 흔한 일은 아니었다. 1년에 한 두 번 씩 일어나는 '특별' 이벤트에 가까웠다. 하지만 2018년의 미투운동이 이를 '일상적인' 일로 바꿔놓았다. 미투운동 당시 수면 아래 있던 공연계의 남성 중심적 사고와 여성들의 피해 사례가 속속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은 연극, 뮤지컬의 특징, 즉 새로운 시도가 타매체보다 쉽게 가능하다는 점과 맞아 떨어져 지금의 '젠더프리' 캐스팅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 안전한 익숙함에서 벗어나 참신한 낯섦으로

관객들이 '젠더프리' 캐스팅을 환영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최근의 연극, 뮤지컬은 과거의 신선함을 점차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공연이 나오기 보다는 이전에 사랑받았던 공연들이 짧게 기간을 두고 재연, 3연, 4연, 그 이상 올라오는 경우가 늘어났다. 좋아하는 공연을 계속 다시 보면 좋지 않냐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 없이 반복되면 질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젠더프리 캐스팅은 익숙함을 깨는 장치가 되었다. 특히, 형식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연극 <오만과 편견>이 그러한데, 2명의 배우가 무대에서는 이 연극에서 등장인물은 21명이나 된다. 따라서 한 배우가 동시에 여러 역할을 맡게 되고 그 안에는 성별이 다른 캐릭터들도 있다. 그것도, 무대 위에서 즉석으로 바뀐다! 예를 들자면, 미스 엘리자베스를 맡은 배우가 치마를 등 뒤로 젖히면 바지가 나오면서 미스터 빙리로 바뀌었다가 치마를 내리고 부채를 들면 미스 캐롤라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젠더프리' 캐스팅의 강점을 온전히 살렸다고 보기에 아쉬운 점도 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다 보니, 인물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와 '전형적인' 성별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배우가 여성 캐릭터를 구현할 때는 희화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오만과 편견>의 박소영 연출가의 말처럼, '역할의 편견없는 분배의 시도로 젠더프리의 시발점'이 되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 '오퍼스' 캐릭터 포스터 사진제공 레드앤블루



편견 없는 배역 분배 2인 2역 연극 '오만과 편견' 출처 아이뉴스24

## 같은 공연이지만 완전히 다른 공연으로

여배우가 하든, 남배우가 하든 같은 대본을 읽고 공연을 하는데 얼마나 차이점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연극, 뮤지컬의 경우에는 배우의 해석에 따라 날마다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성별이 달라진다? 같은 공연일지라도 완전히 다른 공연을 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여성과 남성의 외형이나 '타고난' 성향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다.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보니, 그들이 인물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법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된다. 동시에 지금까지 '전형적인' 역할만 맡아오던 배우들이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면 완전히 다른 배우처럼 보이는 마법이 펼쳐진다.

연극 <오퍼스>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엄마, 연인을 주로 맡아왔던 최유하 배우는 좀도독질을 하고,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욕을 입에 달고 사는 '트랏'을 맡았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묘령의 여인(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속 오로라)으로 그를 만났던 필자에게 거친 모습의 최유하 배우는 정말, '초면'이었다.

## '거기서 거기'를 벗어난, 관객과 여배우


지금까지 많은 연극, 뮤지컬에서 인물 구도는 주로 남자 주인공-여자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남자 주인공의 내용적 비중이 큰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

으나, 연극과 뮤지컬의 주 소비층이 여성인 것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많은 공연이 과거의 전통, 즉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을 그대로 따른 것 등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관객들 안에서는 여배우에 대한, 여캐릭터에 대한, 여성 서사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다만 불만만 극이 없었을 뿐. 특히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여배우들이 맡아왔던 '일반적인' 역할들에 대해서도 반발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젠더프리 캐스팅을 많은 관객들이 반기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늘 보던 배우, 캐릭터, 서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배우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지금까지 소수의 남배우들이 두 개, 많게는 세 개씩 겹치기 공연을 하는 동안에 여배우들은 한 개의 공연이라도 하면 다행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젠더프리 캐스팅이 이뤄지면서 여배우들이 많은 공연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늘 거기서 거기인(희생하고 지켜보고 기다리는)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할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젠더프리 캐스팅 열풍이 언제까지 갈 지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절대 한 때의 유행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끝나서도 안 되고. 젠더프리 캐스팅은 신선한 공연에 대한 갈증과 페미니즘에 대한 열망을 채워준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고정된 성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그렇다면, '젠더프리' 공연을 보러가는 건 어떨까. 

# 유튜브 'YWCA KOREA'에서 Y를 배우다



돌람수렌  
연합회 정책기획국 간사

나는 몽골 국적을 가진 20대 청년이며 연합회 정책기획국 간사로 들어와 아카데미와 아카이브를 담당한다. YWCA에 처음 들어와서 담당 업무를 알게 되었을 때 걱정도 되었지만 가장 빠른 시간에 한국YWCA를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실무활동가의 첫 걸음은 “자신이 일하는 기관인 YWCA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갖는 일”이라 생각한다.

한국YWCA연합회는 2019년에 한국YWCA 목적과 운동, 한국YWCA 역사, YWCA기독교여성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YWCA활동가 역량강화교육을 온라인으로 준비하였고 이를 '여성 아카데미'라고 이름 붙였다.

YWCA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YWCA목적과 정신, 운동역사, 운동정책, 활동가 역할과 가치를 어디서나 쉽게 듣고 이해하여 YWCA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튜브 YWCA 채널에 올렸다.

차시	내용
1	YWCA 목적과 운동 이해
2	시민사회와 YWCA 운동가
3	기독교여성주의 성경 읽기란?
4	여성, '창조질서'의 키워드
5	여성, '언약'의 주인공들
6	성서 속 여성 리더십의 모형-질문하는 여성들
7	예수와 함께 한 여성들
8	초대 교회를 일으킨 여성들
9	성서, 교회 그리고 섹슈얼리티

또한 YWCA기독교여성주의 교재 <하나님 형상 여성, 우리>

를 영상으로 만들어 YWCA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 제공했다.

### 교육 과정 이수 방법

교육대상은 YWCA활동가로 본부 실무활동가는 필수과정이며 자원활동가와 부속시설 실무자는 선택과정이다. 유튜브 채널에서 'YWCA KOREA'를 구독하고, 총 9개 영상을 시청한 후 1)한국사회에서 YWCA가 감당해야 할 기독교 여성운동은 무엇인가 2)우리 지역에서 Y목적과 운동을 통해 기독교여성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변화시키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3)YWCA 활동가로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정의, 평화, 생명의 실천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적어 이메일 (ywcaacademy@naver.com)로 보내면 된다. 3가지 질문 중 2개 이상 통과 시 이수 인정이 되며, 2회까지 피드백을 하고 이수 여부를 결정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YWCA활동가들이 YWCA 정체성을 더 깊이 고민하여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확실히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다. 시민사회에서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즉 우리에게 적합한 시간과 적합한 장소가 지금이라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YWCA 정체성에 맞는 활동가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을 실천해 나가는 YWCA활동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 연합회 소식

### 월례아침기도회



월례아침기도회가 9월 5일(목), 10월 10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9월 기도회는 Y-틴위원회가, 10월 기도회는 성평등위원회가 각각 주관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연합회 위원, 실무자들은 '내 주님은 어디에'(9월, 박선희 창천감리교회 목사),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있지 않습니다'(10월, 김신애 목사)라는 주제의 말씀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한국Y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2차 YWCA 미래가치포럼



9월 5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제2차 YWCA 미래가치포럼이 열렸다. 성공회대 양권석 교수의 '자본주의의 페르소나: 소비 사회와 윤리적 삶'에 대한 특강 후 참석자들은 질의 응답과 토론을 통해 비인간적이며 탐욕적인 가치체계 안에 갇혀있는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소비를 넘어서는 새로운 주제적인 삶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13~15쪽 참조)

### 제1차 YWCA 여성폭력 관련 시설 신입실무자 워크숍

제1차 YWCA 여성폭력 관련 시설 신입실무자 워크숍이 9월 6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22개 회원YWCA가 운영하는 가정·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쉼터, 지원시설의 신입상담사와 실무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광지영 연합회 실행위원(승실사이버대 교수)이 'YWCA 여성운동'을 주제로 강의했고, 배영미 교수(서울여



대)가 '활동가 레질리언스(resilience : 회복탄력성) 증진'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본 행사는 여성가족부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다.

### 2019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아카데미



2019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아카데미가 9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10월 16일(화)부터 17일(수)까지 총 2회차에 걸쳐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회원YWCA가 운영하는 27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이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정하고 진행하는 관장 아카데미는 올해 2회의 교육을 실시하며 아카데미 운영의 틀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26~27쪽 참조)

본 행사는 여성가족부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다.

### 제5차 길위의 평화포럼



## 연합회 소식

제5차 길위의 평화포럼이 9월 19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신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시민사회 과제'를 주제로 한 조봉현 소장(IBK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센터장)의 강의와 더불어, 참가자들은 총 5차의 포럼에 대한 평가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Y 대표 및 탈북민 39명으로 구성된 평화포럼단은 그동안 꾸준히 포럼에 참가하여 북한의 변화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변화를 공유하고 평화활동가로서의 다짐을 나누었다. (자세한 내용은 24~25쪽 참조)

### 제2차 YWCA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



제2차 YWCA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이 9월 20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시설장워크숍에는 회원YWCA가 운영하는 가정·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쉼터, 지원시설 소장 24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기록여성주의의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강의(성윤리에 대한 기독교 여성주의적 응답/ 백소영 강남대학교 교수)를 듣고, 시설 현안들을 논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28~29쪽 참조)

본 행사는 여성가족부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다.

### 제2차 YWCA 성평등운동 담당 실무자 워크숍



9월 25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회원YWCA 성평등운동 담당 실무자 22명이 모인 가운데 실무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한국YWCA 역사관 '이제'를 방문해 YWCA 역사를 살펴보고(차경애 복지사업단 이사장 설명), '우리는 왜

여성운동을 할까'(조이현임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대표)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시간을 통해 성평등 운동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운동 목적을 공유했다. 본 행사는 여성가족부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다.

### 제244차 불의날 탈핵캠페인



제244차 불의날 캠페인이 '미세먼지 없는 서울, 시민 실천 캠페인'을 주제로 9월 24일(화) 연합회 회관 앞에서 진행되었다. 서울YWCA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에는 연합회 위원과 실무자, 서울YWCA, 대전YWCA 실무자 등 총 34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에게 '나는 미세먼지 줄이는 녹색실천 할래요!'에 서명 참여를 독려하며 화분을 나눠주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공유하며 관심과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 '영페미니스트, 글로리아 스타이넴에게 묻다' 대화 모임



세계적인 국제 평화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넴과의 대화모임이 9월 20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YWCA 및 여성단체 활동가, 학생 및 일반인, 언론인 총 1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리아 스타이넴과 함께 페미니즘과 한반도 평화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대화모임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했다. (자세한 내용은 20~21쪽 참조)

###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2019년 태백산



2019년도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행사가 9월 30일(월)부터 10월 2일(수)까지 태백·정선·영월 일대에서 열렸다. 2017년 연합회가 주관한 한라산순례를 시작으로, 지난 해 광주YWCA가 주관한 지리산순례에 이어 올해에는 서울YWCA 주관으로 태백산에서 진행되었으며,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하여 한민족 디아스포라(탈북민, 조선족, 고려인, 재미동포)를 포함한 총 200여 명의 여성평화순례자가 참여하였다. 순례자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한 한민족여성의 역할을 공유하고 평화의 염원을 나누었다.(자세한 내용은 6~12쪽)

### 김필레선생 기념문집 출판기념회



김필레 선생의 신앙과 교육철학, 여성지도자로서의 삶과 뜻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한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가 <김필레 그를 읽고 기억하다> 문집을 펴냈다. 출판기념회는 한국YWCA연합회,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 대한예수교장로회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주최로 선생의 뜻을 기리는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7일(월) 서울YWCA 강당에서 열렸다. 문집은 김필레 선생의 정신여중고 후배이자 제자인 동문들이 2년 여 동안 자료와 증언들을 찾아 엮어낸 것으로, 평전과 생전 기고문 및 추모글이 담겨있다. 김필레 선생은 한국YWCA 창설자 중 한 분으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정신여중고 등에서 후배를 양성하고 서울여대 설립의 기초를 놓는 등 기독교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 1922장학금 모금바자회



한국YWCA연합회가 청소년, 청년리더십 양성을 위해 95주년 기념사업으로 신설한 1922장학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가 10월 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이틀간 한국YWCA 회관 앞에서 열렸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재)바보의나눔을 통해서 기부받은 여성구두 및 운동화를 판매했다. 1922장학금 모금은 연합회와 전국 회원YWCA가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30여 명의 대학Y, Y-틴 리더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2019 한국YWCA 정책협의회



2019년도 한국YWCA 정책협의회가 10월 15일(화) 서울YWCA 강당에서 열렸다. 전국 52개 회원YWCA 대표와 연합회 집행위원, 실무활동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0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정책안을 제안하고 협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장은 개회예배 말씀선포를 통해 "YWCA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철저한 체질개선의 노력을 함께 해나가므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YWCA가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한국YWCA 법인 재구조화 방안 제안'(한영수 연합회 회장), 'YWCA 부속시설 평가와 제안'(손병덕 총신대 교수), 'YWCA 부속시설 (신)운영정책(안) 제안'(원영희 연합회 제1부회장), '2020-2021 YWCA 운동정책 제안'(이종임 연합회 제2부회장)을 통해, 대표들은

## 연합회 소식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YWCA 목적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공유하고 합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22~23쪽 참조)

### 한국YWCA 회관 마스터리스 계약 체결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는 사회혁신기업 더함과 2019년 10월 17일(목)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한국YWCA 연합회 회관 및 부지에 대한 마스터리스(master lease) 계

약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마스터리스 계약을 통해 명동의 한국YWCA 회관 및 부지를 더함이 20년간 장기 임대하여 리모델링 후 사회적 가치와 목표에 지향점을 두는 소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관리·사용하게 된다. 오는 2022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YWCA는 마스터리스 계약을 통해 한국YWCA 역사적 공간이 명동 일대 소셜 커뮤니티 타운 조성의 거점이 되어 혁신적인 도시재생과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등정

채용 **이예림** 협력사업팀 프로젝트 계약직 간사 (2019. 9. 16일자)

###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9. 8. 1 ~ 2019. 9. 3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2019. 8. 1 ~ 2019. 9. 30)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은택, 권경미, 권순복, 권 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곤,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욱, 박은경, 박입희, 박진화, 박효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혜진,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호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 이주영, 이지윤, 이찬형, 이천진, 이항자, 이해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장미란, 차경애, 채정희, 천유란, 최수선,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3,565,000
개인 기부	이행대, 조임근, 최아이크, 박영순	281,820
회원YWCA	순천YWCA	280,840
협력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하늘가족교회	260,000
기관 및 단체	명성약국, 르뽕(명동성당점), 레오니다스, 에쎬렐라또(명동점)	24,750
	<b>합계</b>	<b>4,387,660</b>
	<b>총액</b>	<b>24,492,600</b>

### YWCA 1922장학금 모금현황

(2019. 8. 1 ~ 2019. 9. 3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김대곤, 김득환, 김민자, 김수진, 김은숙, 김정미, 김정숙, 김정희, 김휘성, 나척더르즈, 돌람수렌, 닌징소브드, 박명진, 박영진, 박준숙, 배창빈, 양영심, 윤정현, 위원주, 이영희, 이은자, 이재숙, 이채욱, 장화인, 정순기, 조지순, 조영희, 홍성희, 홍은희, 황명자, 황선하	1,366,000
회원YWCA	세종YWCA 서울YWCA - 김선자, 김숙자, 민병욱, 민홍숙, 박위자, 신종금, 이명순, 이정숙, 이홍자, 조민자, 조봉자	230,000
5년 약정 8, 9월분 완납 명단	박호순, 오민정, 오종명, 장미란	
	<b>8월~9월 모금액</b>	<b>1,596,000</b>
	<b>누계</b>	<b>10,629,12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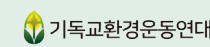
「환경부·종교단체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 신앙의 실천을 통해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한국YWCA연합회 환경 선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창조세계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성찰하고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한국YWCA연합회는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신앙의 실천을 통해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녹색십계명을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 1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과다한 자원사용은 지구에 부담을 줍니다.
- 2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화석연료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만듭니다.
- 3 친환경세제를 사용합시다. 합성세제는 물을 환경호르몬으로 더럽힙니다.
- 4 되살림용품을 사용합시다. 재생용품 사용은 가장 착한소비입니다.
- 5 물과 전기를 아끼시다. 물과 전기를 아끼면 에너지를 아끼게 됩니다.
- 6 건강하고 소박한 밥상을 차립시다. 기업축산은 생태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 7 쉼과 여유를 갖고 삽시다. 주일은 사람과 창조세계 모두가 쉬는 날입니다.
- 8 생태적 소비를 합시다. 광고는 필요 없는 것들을 구매하게 합니다.
- 9 작고, 단순하고, 불편하게 삽시다. 청빈과 절제는 신앙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 10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삽시다. 십자가 정신으로 이웃과 나누는 사람은 하늘 복을 받습니다.

개신교의 다른 단체나 개인, 각 교회에서도 적절한 내용의 실천수칙들이 잇따라기를 기도드리며,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을 보탭니다.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도시&여성&안전’ 사업 결과 보고회



고양YWCA는 9월 16(월) 일산동구청에서 2019년 고양시 성평등기금지원사업인 ‘고양2019프로젝트 도시&여성&안전’ 사업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14명의 모니터링단은 고양시 19곳을 23회에 걸쳐 재난·재해·여성안전관련 사업분야를 현장 모니터링했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이사교육



광명YWCA는 9월 2일(월)부터 준회원Y 감사 후속으로 이사교육을 실시했다. 광명Y역사 및 구조(사무총장), YWCA 목적문 이해(신영희 협력위원), 현장 및 계규정의 이해,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의 이해(정숙 협력위원), 이사의 역할, 의무 및 책임(전배자 협력위원), 회원증모운동의 이해, 경영가이드라인 자가평가(신영희 협력위원)를 4주에 걸쳐 진행했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어르신 한글교실

남양주YWCA는 9월 2일(월) 하반기 ‘어르신 한글교실’을



개강했다. 배움의 시기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바르게 읽고 쓰기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없애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타인에 대한 이해력과 수용력을 높이고자 기획했다.

부천YWCA

김은아 간사

청지기 및 사이버도래활동가 모임 및 QR코드 부착



부천YWCA는 9월 23일(월) 부천역 일대에서 2019년 ‘청소년보호를 위한 찍으면 보인다 QR코드 부착사업’을 진행했다. ‘청지기(청소년을 지키는 기동대)’ 및 사이버도래활동가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활동을 했다.

성남YWCA

김자혜 간사

이사·위원·실무자 워크숍



성남YWCA는 9월 24일(화) 강원도 춘천 일대에서 이사·위원·실무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2년 만에 진행한 워크숍에 이사, 위원, 실무자가 참석해 YWCA 목적과 운동성, Y활동가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수원YWCA

정혜진 주임

창립50주년 기념예배·기념식



수원YWCA는 9월 10일(화)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가치있는 세상 같이가는 수원YWCA’라는 주제로 창립50주년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열었다.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금진 부회장의 인도로 기념예배를 드린 후 기념사, 격려사, 축사, 감사패와 공로상 수여, 기념영상 상영, 축하공연 등을 진행했다.

안산YWCA

홍지인 팀장

경기도 근로자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안산YWCA는 안양YWCA와 협력하여 경기도 내 5개 시군(시흥, 안산, 광명, 의왕, 안양, 군포)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관리사 보수교육을 진행하였으며 8월부터 12월까지 한 가정 당 20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양YWCA

신재화 간사

여성진로페스티벌



안양YWCA여성인력개발센터는 9월 26일(목) 롯데백화점 평촌점 광장에서 제24회 여성진로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각종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스킬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했다. 안양YWCA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매년 한 차례씩 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업과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진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의정부YWCA

김흥례 부장

2019 여성취업박람회



의정부YWCA여성일하기센터는 경기북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9월 18일(수) 경기도청 경기평화광장에서 2019년 여성취업박람회를 진행했다. 600여 명이 참여해 구직상담 및 이력서 클리닉, 현장면접 등을 진행했다. 직업 체험관을 운영하여 토탈공예지도사, 실버건강요리사, 캘리그래피지도사, 천연비누창업 등도 체험했다.

파주YWCA

전혜은 간사

청소년 미래직업체험



파주YWCA는 9월 20일(금)에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하여 ‘청소년 미래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소년 26명과 Y-틴 지도교사 4명이 참여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IT관련 직업을 탐색하고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제16회 실버노래자랑

하남YWCA는 9월 18일(수)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제16회

## 회원YWCA 소식



실버노래자랑'을 개최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으며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께 삶의 활력소를 주어 즐겁고 활기찬 인생이 되게 하며 자아 재발견의 기회를 마련했다.

## 동부

### 거제YWCA

심은옥 간사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거제YWCA청소년오케스트라는 9월 7일(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진행했다. 신세계교향곡을 시작으로 동요메들리, 영화주제곡, 가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였고, 소프라노 송유경님과 레인보우 오카야상블, 시니어합창단인 민들레합창단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이종호 선생님의 지도 아래 40여 명의 단원들이 재능을 계발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김해YWCA

배정숙 부장

#### 아나바다 큰 장터

김해YWCA는 9월 21일(토), 10월 26일(토) 김해 화정공원에서 2019년 아나바다 큰 장터를 개최했다. YWCA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날, 지역민뿐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참여하여 직거래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열었고, 부모와 자녀와 함께 참여해 '아나바다'의 중요성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 김해YWCA는 앞으로



도 아나바다 운동을 활성화하여 환경문제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주민교류도 이끌어가고자 한다.

### 대구YWCA

김보현 간사

#### 꿈드림 자기계발 프로그램



대구YWCA 부속시설 대구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8월 검정고시를 치른 청소년들이 원하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조사해 9월 3일(화)부터 9월 25일(수)까지 매주 화, 수요일에 포레스트아일랜드 제과점에서 베이킹과 제과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은 직접 만든 빵과 제과를 인근 경로당을 방문해 나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 마산YWCA

한혜경 부장

#### 종이영수증 없애기 캠페인



마산YWCA는 9월 11일(수)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종이영수증 없애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종이영수증 발급과 처리를 위해 자원이 낭비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음을 알렸다.

### 부산YWCA

김예은 간사

#### 이사·위원연수



부산YWCA는 10월 8일(화) 이사·위원연수를 실시했다. 역사 특강 '기억과 추억의 역사 :부산지방에서의 초기 기독교'(이상규 교수), 부산 곳곳을 돌아보는 조별투어, 소감 나눔 등을 진행했다. 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이었다.

### 사천YWCA

정희경 간사

#### 청소년자유동아리 '게릴라 가드닝'



사천YWCA는 7월부터 8월까지 사천시 정동면 청심천 일대에서 청소년자유동아리 학생 20명과 함께 '게릴라 가드닝' 활동을 전개했다.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 학교연계분야 사업의 일환인 '게릴라 가드닝'은 버려진 땅이나 자투리땅을 정비하고 예쁜 꽃을 심어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는 지역 가꾸기 활동이다. 참가학생들은 불필 쓰레기 투기 장소에 게릴라 가드닝을 실시하여 사전, 사후를 비교, 관찰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녹색생활 실천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 양산YWCA

조은진 간사

#### 청소년 경제교육

양산YWCA는 8월 14일(수) 양산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교육을 진행했다. 대전 화폐박물관을 방문해 올바른 경제, 소비가치관과 합리적 소비활동을 키우고, 우리나라 화폐 역사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와 금융관련 전시 관람으로 경제 전반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버스 이동시간을 활용해 경제교실 강의와 다양한 퀴즈 풀기를 진행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소비생활습관 형성과 기초적인 경제개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울산YWCA

김예린 간사

#### 사무총장 이·취임식



울산YWCA는 9월 2일(월) 울산YWCA 강당에서 사무총장이·취임을 진행했다. 정은경 전 사무총장이 이임하고 한현정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김종환 울산온누리교회 목사), 직전사무총장 이임사 및 감사패 수여, 취임사 및 임명장 수여를 진행했다.

### 진주YWCA

김태진 팀장

#### '불을 끄고 별을 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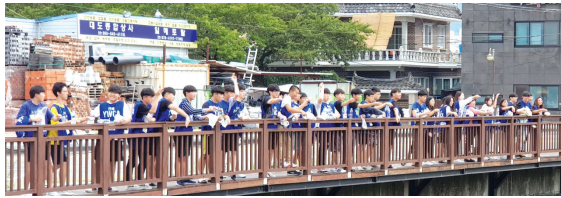
진주YWCA는 제16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8월 22일(목) 저녁 6시부터 가호동 아파트 입주민과(369세대) 함께 소동행사 '불을 끄고 별을 켜다'를 진행했다. 입주세대 95%가 참여했으며 행사에 앞서 입주민들과 함께 하는 별빛 음악회와 대안에너지 체험(자가발전기 주스 만들기), EM천연비누만들기, 에너지 절약 오행시 등 다양한 부스체험도 운영했다.

## 회원YWCA 소식

### 진해YWCA

이재경 부장

#### Y-틴 에코 교육활동



진해YWCA Y-틴 청소년환경기자단은 8월 24일(토) 창원시 재활용품교환판매장 내 교육장에서 에코 교육활동을 했다. Y-틴 참가자 30여 명은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EM' 주제로 강의를 듣고, EM비누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날 만든 EM미용비누는 길마켓에서 판매해 진해YWCA 장학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 창원YWCA

김진아 간사

#### 걷기대회



창원YWCA는 10월 8일(화) 안민고개에서 창원시민 100명과 함께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추억의 전통놀이와 함께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과 만나고, 가을단풍과 함께 추억을 만들었다. 걷기대회 중에 환경퀴즈풀이 등 즐거운 게임과 환경체험마당, 음악회 등도 열었다.

### 통영YWCA

변은실 팀장

#### 청소년 역사문화프로그램



통영YWCA는 매일 넷째주 토요일마다 지역문화 바로알기

'다함께 놀자 동네 한바퀴'를 진행한다. 경상남도 지원 2019년 청소년단체활동지원사업으로 통영시 청소년 40여 명이 참여한다. 청소년들이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알고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 포항YWCA

김민경 간사

#### 청소년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전통마을 문화체험



포항YWCA는 8월 12일(월) 포항전통문화체험관에서 청소년과 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20명이 짝을 이루어 우리가락배우기를 비롯한 난타체험, 인절미 만들기 등 총 6가지의 체험을 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 북부

### 강릉YWCA

이신애 부장

#### 이웃사랑 민들레 나눔장날



강릉YWCA는 9월 27일(금) 강릉YWCA회관에서 '이웃사랑 민들레 나눔장날'을 열었다.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과 올해 추수한 농산물, 겨울준비를 위한 공산품, 각 위원회에서 직접 준비한 먹거리 등을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 동해YWCA

김보람 간사

#### 청소년 진로캠프 '무비 상상N도전'

동해YWCA는 8월 24일(토) 청소년 진로캠프 '영화 속에 보이는 직업을 상상하고 도전하는 청소년'을 열었다. 관내 청소년 30명이 참여해 기획한 이 캠프는 재난안전영화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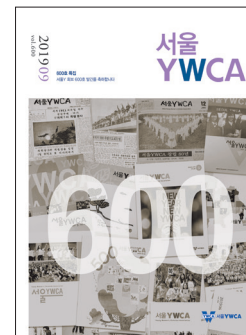


후, 동해소방서로 이동해 재난대피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의 활동으로 진행했다.

### 서울YWCA

성지희 간사

#### 회보 600호 발간



1966년 3월 창간된 서울YWCA 회보가 53년이 지난 올해 9월, 통권 600호를 맞았다. 특별히 600호에서 초대 공보출판부 위원이었던 김후란 '문학의집·서울' 이사장과 이어령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전하는 축하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옛 회보 발자취를 따라 각 시대의 YWCA 목소리도 들어보

았다. 앞으로도 회보가 서울YWCA 소식을 알리고 역사로서 기록하며 서울YWCA와 회원을 잇는 소중한 매체로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

### 속초YWCA

주미란 간사

####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협약식



속초YWCA는 8월 27일(화) 속초YWCA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사업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협약식 및 회의를 진행했다. 이 교육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품목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식의약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고 어르신 소비자와의 소통을 이어가고자 한다.

### 원주YWCA

김민영 간사

#### 저탄소 인증 농산물 현장체험



원주YWCA는 9월 20일(금) 충주 사과농장에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 현장체험을 진행했다. 원주YWCA 어린이집 원아, 학부모와 함께 저탄소 농산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체험시간을 가졌다.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 인천YWCA

김다설 팀장

#### 미세먼지 저감 동참 프로젝트



인천YWCA는 '인천시민 미세먼지 저감 동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교육 강사 및 환경운동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안교육 전문 강사단을 꾸려 '찾아가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안교육'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유아, 아동,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까지 81회기 1,6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 춘천YWCA

허현주 간사

#### 후원바자회



춘천YWCA는 9월 27일(금) 춘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주차장에서 후원바자회 '마실장터'를 열었다. 이사회에서

## 회원YWCA 소식

직접 만든 청귤청, 회원들이 기부한 아나바다 물건, 수강생들의 홈페이지, 지역농산물, EM제품 등을 판매했다. 수익의 일부는 돌보미 자녀들의 장학금 등에 쓰일 예정이다.

##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광양YWCA는 9월 26일(목) 광양 하나로마트 앞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일깨우는 인식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졌다.

광주YWCA

윤정순 관장

###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규탄대회



광주YWCA와 광주·전남 탈핵시민사회단체는 8월 28일(수)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1호기 재가동 결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 및 탈핵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여 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은 인재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주민들의 없이 재가동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광주YWCA를 비롯하여 호남지역 탈핵운동단체들은 한빛1호기 재가동을 반대하고 34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남원YWCA

임진아 간사

### 소방안전교육

남원YWCA는 9월 3일(화) 교육실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



시했다. 남원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강사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하임리히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고, 4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음을 배웠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 한우 우수성 교육



목포YWCA는 9월 17일(화)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 한우 바로알기! 한우 우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회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훈 요리연구가의 '한우 바로알기'라는 내용으로 한우의 영양 및 우수성과 부위별 특성 및 용도, 선택 요령 등을 교육했다. 이어 참가자와 함께 시식회도 가졌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 '시민참여단이 된다' 시민포럼 및 활동보고



서귀포YWCA는 9월 6일(금) '제주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된다' 2차 시민포럼과 활동보고회를 열었다. 시민참여단과 제주도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안에서의 시민참여단 역할'을 주제로 윤금이 대표(아산센터 포럼)가 발표하고 이신선 사무총장이 제주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결과와 인식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순천YWCA

손모아 주임

### 추석맞이 바자회



순천YWCA는 9월 2일(화)부터 3일(수)까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추석맞이 바자회를 열었다. 매년 이사, 직원, 회원들이 만드는 돈가스, 레몬청, 연잎밥, Y손맛 부각 등 수제음식을 팔았다. 윤순영패션, 짓갈류, 잡곡류 및 천연화장품 체험코너, 먹거리 등 다양한 품목을 제공했다. 수익금은 YWCA 성평등 운동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여수YWCA

김혜영 간사

###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여수YWCA는 2019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진행한다. 생활 속 불평등 사례를 찾아 유관기관 및 시민들과 공유하여 실생활 안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수 원도심 여성안전지도 제작할 예정이다. 9월 24일(화) 모니터링교육을 실시했고 이후 현장 모니터링, 시민설문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익산YWCA

김다영 간사

### 여성네트워크포럼 역사탐방



익산YWCA는 9월 24일(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여성네트워크포럼 역사탐방을 실시했다. 세관과 조선은행 군산지점을 마지막으로 탐방을 마치면서 참가자들은 "최근 일본 아베총리의 경제보복과 맞물려 굴절된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 '세상을 바꾼 여성들의 특(talk) 쏘는 이야기'



전주YWCA는 9월 9일(월) '역사 속 여성과 페미니즘'을 시작으로 '세상을 바꾼 여성들의 특(talk) 쏘는 이야기' 성평등 교육을 4회 진행했다. 세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를 탐구하며 성평등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기획했다.

제주YWCA

박슬기 간사

### 평화아카데미



제주YWCA는 8월 22일(목), 9월 19일(목) 제주 김만덕기념관에서 평화아카데미 4,5강을 진행했다. '나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만든다'는 주제로 총 6개 강의와 한 번의 난징현장탐방으로 진행한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정신 확산을 위해 제주4·3, 히로시마, 블라디보스톡 등 매년 분장의 역사를 주제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 중부

논산YWCA

조아영 간사

### 에너지의날 캠페인

논산YWCA는 8월 22일(목) 논산중, 논산여중, 썬밸여중 앞에서 제16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나누자 평화의 에너지'

## 회원YWCA 소식



캠페인을 펼쳤다. 에너지 절약 및 의식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삼행시, 퀴즈풀기 등을 진행했다. 참여자에게 미니 보틀병을 나눠주며 절약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 대전YWCA

안소진 간사

#### '아빠가 차려주는 식탁'



대전YWCA는 9월 21일, 28일(토) 근로자 남성 40명이 참여해 '아빠가 차려주는 식탁'을 진행했다. '맞벌이 가정의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사랑받는 아빠 되기 프로젝트'에서 실습한 요리로 가정에서 식탁을 직접 차려 가족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세종YWCA

허미정 부장

#### '환경의 가치를 더하다\_EM원정대 가치웁김'



세종YWCA Y-틴 이든샘 봉사동아리는 8월 24일(토) 양지 고등학교에서 가족봉사단 80명과 '환경의 가치를 더하다\_EM원정대 가치웁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Y-틴 멘토 이의선 학생(前전국Y-틴 회장)의 환경교육과 EM활성액 강의, 활성액과 흙공만들기, 하천에 흙공 던지기 활동을 했다.

### 제천YWCA

김미경 팀장

#### 어르신 소비자 교육

제천YWCA는 9월 24일(화) 동부교회실버노인대학생 120



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소비자 교육'을 진행했다. 소비자 권리, 개인정보 보호, 신종금융사기, 제품 구입 시 주의점 및 피해사례, 피해 시 구제방법 등을 알렸다. 교육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물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청주YWCA

한기연 간사

#### 충북여성문화제



청주YWCA는 9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롯데시네마 성안점에서 충북여성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 21주년을 맞은 이번 문화제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를 주제로 9편의 영화가 선정되었으며, 약자로 취급된 여성의 실제 이름이 영화 제목이 된 영화를 통해 여성을 그려내는 방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충주YWCA

이예림 간사

#### 활동가 영성훈련



충주YWCA는 8월 29일(목)에 충주YWCA회관에서 활동가 영성훈련을 진행했다. 이천진 목사님이 강사로, YWCA 목 적문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교회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YWCA가 펼쳐야함을 강조했다. 교육을 통해 충주YWCA 운동 비전 수립의 기회가 되었다. 이 사, 위원,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걱정은 반으로 접으세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기준: 소득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본인부담의료비 발생 시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 시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200만원 초과 시
- \*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지원범위

- 지원수준: 본인부담 의료비(급여제외)의 50% 지원
-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 진료 및 외래 진료일수 합산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00만 원

###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